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 김성은

공동연구원 김준엽



연구보고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X: 데이터분석보고서 -청소년 생활시간 유형

책임연구원_ 김성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김준엽(홍익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_ 구본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하고 성장·발달에 유익한 생활시간 활용을 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청소년이 여러 가지 시간 사용 항목에 들어는 시간을 각 항목 간 관련성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생활시간 실태를 보다 실재에 가깝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간의 사용이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고 보고 유사한 패턴을 묶어 집단으로 유형화 하였다. 전체 청소년 집단 내에 존재하는 하위 집단을 고려하지 않고 대표 값으로 시간 사용 실태를 파악할 경우 개별 혹은 집단의 시간 사용의 특성이 상쇄되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2018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현재 청소년의 생활시간 형태를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으로 유형화하고, 생활시간 배분 유형 간 특성의 차이 및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투입된 변인으로 신체발달, 심리·정서, 학업/학교, 가정배경 등의 특성을 선별하였다. 연구에서는 또 2010년과 2018년의 생활시간 활용 양상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해의 생활시간 유형을 분류한 후 이 유형 간 시간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자료 분석은 잠재집단분석 외에도 일원분산분석과 대비계수를 활용한 사후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2018년 중학교 1학년에는 유희집단, 균형집단, 무기력

집단, 학업집단의 4가지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집단(16.5%)은 여가시간 중 미디어 사용 시간과 친구와 노는 시간이 길고 학업관련 시간은 적은 집단으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가장 높고 심리·정서적, 학업/학교관련 특성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고 긍정적 태도는 낮았으며 월 소득도 비교적 낮았다. 균형집단(25.0%)은 학업시간과 여가시간이 고르게 길고, 수면 및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충분한 집단으로 신체발달, 심리·정서, 학업/학교관련 특성 등이 모두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무기력집단(35.7%)은 학업과 여가 모두 활용 시간이 적은 집단이며, 여러 비교 특성이 균형, 학업집단보다는 부정적으로, 유희집단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학업집단(22.7%)은 특히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 길고 독서를 제외한 여가시간 항목에는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운동시간이 가장 적고 부모의 자녀 기대학력과 성취에 대한 만족이 높았으며, 월 소득과 어머니 학력이 가장 높았다. 2010년과의 생활시간 비교에서는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학원시간 증가와 스스로 학습시간 감소, 친구와 노는 시간과 학업집단의 독서시간 증가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와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율 제고, 스마트폰 범부처 대응체계 성과 평가, 사교육 대응 방안 점검과 변화 등의 정책 제언과 자녀 시간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학업 및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 전환, 디지털 페어런팅 등 가정에서의 역할도 제안하였다. 연구는 시간 사용을 패턴화하여 청소년의 하루 시간 사용 양상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한데 의의가 있으며, 지역수준 접근과 향후 시간 사용 유형 변화의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생활시간, 생활시간 유형, 잠재집단,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하고 성장발달에 유익한 생활시간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음
- 여러 가지 시간 사용 항목들에 들어는 시간을 분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항목 간 관련성 속에서 청소년 생활시간 실태를 보다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고자 함
 - 시간의 사용이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고 보고 유사한 패턴을 묶어 집단으로 유형화함
 - 2018년 현재 청소년의 생활시간 형태를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으로 유형화하고, 생활시간 배분 유형 간 특성의 차이 및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함
 - 2010년과 2018년의 생활시간 활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유형비교를 통하여 세대 간 비교도 실시함

2. 연구방법

- KCYPS 2018 중학교 1학년 코호트 2,589명 청소년과 보호자를 연구 대상으로 함
- 분석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함
 - 전체 연구대상 내에 존재하는 하위집단을 생활시간 활용 패턴에 따라 분류한 후 각 잠재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정서,

신체발달, 가정배경, 학업 관련 요인 등을 일원분산분석과 사후분석으로 비교함

- 유형을 결정짓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함
- 세대 간 비교를 위하여 2010년 중학교 1학년 코호트와 잠재집단 수 및 유형을 비교함



3. 주요결과

- 2018년 중학교 1학년에는 다음의 4개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희집단: 여가시간 중 미디어 이용 시간과 친구와 노는 시간이 길고 학업관련 시간은 적은 집단이 16.5%로 나타남
 - 균형집단: 학업시간과 여가시간을 고르게 많이 사용하고, 수면 및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충분한 집단으로 25.0%로 나타남
 - 무기력집단: 학업과 여가 모두 활용 시간이 적은 집단으로 35.7%로 나타남
 - 학업집단: 학업시간 중 특히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 길고 독서를 제외한 여가시간 항목에는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집단으로 22.7%로 나타남

4. 결론

- 연구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 학교 수준의 정책 제언 및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에 관하여 제언함
- 연구는 시간 사용을 패턴화하여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한데 의의가 있으며 지역수준 접근과 향후 시간사용 유형 변화의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임

	주요결과	제언
학업 집단	· 학원 시간이 길고 여가시간 적음(독서 제외) · 운동시간 가장 적고 건강상태 낮게 평가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대체로 높았으나 균형집단보다는 낮은 편 · 부적 양육태도가 균형집단보다 높은 편(강요) · 자녀의 기대학력과 성취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월 소득과 모학력 높고 모취업 비율 낮음	· [국가]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감소에 대응 · [학교] 공기 질에 관계없이 신체활동 가능한 설비와 공간 마련/ 문화체육예술 활동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 변화 유도 · [가정] 여가/휴식의 중요성 인식 · [연구] 교육열 정책의 타깃 집단: 특성 및 교육관, 균형집단 부모와의 비교연구 등
무기력 집단	· 학습시간, 여가시간 모두 적은 시간 활용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다소 낮았으나 유희집단보다는 높은 편 · 월 소득, 모학력 낮고, 모취업 비율 높음 ·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가장 적음	· [국가]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제고: 교육청/학교와 협력, 접근성 제고, 대상 확대 ·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와 연계를 위한 협조 · [가정] 대화시간 증대 및 자녀 시간 사용에 대한 관심/ 활동경험을 통한 시간 사용 선택권 부여 · [연구] 요구에 맞는 활동경험 제공: 실태 및 요구조사 수행
유희 집단	· 휴대폰, 컴퓨터, TV, 친구와 노는 시간 길 · 휴대전화 의존도 가장 높음 · 아침식사 횟수 가장 적고 BMI 가장 높음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가장 부정적 · 월 소득, 모학력 낮고, 모취업 비율은 높음 · 부정적 양육태도 높고 긍정적 태도 낮음	· [국가] 스마트폰 범부처 대응체계의 지속적 평가와 개선 · [학교] 청소년 실제 매체 활용 실태를 반영한 실생활 교육 · [가정] 디지털 페어런팅에 관심/스스로의 디바이스 사용습관 점검 · [연구] 교육복지지원 대상 집단: 정책 효과성, 수혜비율/만족도 연구 등
생활 시간 변화	· 학원시간은 증가(유희), 스스로 학습시간은 감소(유희, 균형) 경향 · 최근 비교과/예체능 관련 학원 참여 증가 · 모든 유형에서 친구와 노는 시간 증가하였고, 학업집단에서만 독서시간 증가	· [국가] 최근 사교육 참여 경향에 맞춘 대응방안 필요: 비교과/예체능 관련 적극적 기관, 지역 연계 필요 · [학교] 책을 고르는 활동에 있어 선택권/자율권 보장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X:
데이터분석보고서
-청소년 생활시간
유형

연구보고 19-R14-1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시간의 영향	9
2. 생활시간 결정변인	12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17
2. 연구 변인 및 모형	19

IV. 결과

1. 유형 특성 분석 결과	31
2. 유형 결정요인 분석 결과	54
3. 세대 간 비교·분석 결과	63

V. 논의

1. 결과 요약	84
2. 제언	90
3. 결론	116

참고문헌	119
------------	-----

부 록	129
-----------	-----

ABSTRACT	137
----------------	-----

표 목차

표 III-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개요	18
표 III-2 연구 대상 특성	18
표 III-3 청소년 생활시간 유형 분석 구조	19
표 III-4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 항목	21
표 III-5 생활시간 유형별 특성 비교변인	22
표 III-6 생활시간 결정요인으로서의 보호자 변인	25
표 III-7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 항목	26
표 IV-1 2018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별 기술통계	31
표 IV-2 생활시간 유형별 신체발달 특성 기술통계	36
표 IV-3 생활시간 유형별 신체발달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	37
표 IV-4 생활시간 유형별 심리 및 정서 특성 기술통계	38
표 IV-5 심리 및 정서 특성 조사문항	39
표 IV-6 생활시간 유형별 심리 및 정서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40
표 IV-7 생활시간 유형별 학교 및 학업 특성 기술통계	41
표 IV-8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 특성 조사 문항	42
표 IV-9 생활시간 유형별 학교 및 학업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43
표 IV-10 생활시간 유형별 장래희망 교육 수준 교차분석	44
표 IV-11 생활시간 유형별 장래직업 결정여부 교차분석	45
표 IV-12 생활시간 유형별 또래관계 특성 기술통계	46
표 IV-13 또래관계 특성 조사 문항	47
표 IV-14 생활시간 유형별 또래관계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48
표 IV-15 생활시간 유형별 스마트폰 사용 특성 기술통계	49
표 IV-16 스마트폰 의존도 조사 문항	50
표 IV-17 생활시간 유형별 스마트폰 사용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51
표 IV-18 생활시간 유형별 경제적 배경 기술통계	52
표 IV-19 생활시간 유형별 경제적 배경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	53
표 IV-20 생활시간 유형별 부모 변인 기술통계	54

표 Ⅳ-21 생활시간 유형별 부모 변인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58
표 Ⅳ-22 집단 변별 요인 다분로지스틱 분석결과 (기준: 균형집단) ..	61
표 Ⅶ-23 집단 변별 요인 다분로지스틱 분석결과 (기준: 무기력집단)	62
표 Ⅳ-24 2010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별 기술통계	63
표 Ⅳ-25 2018년 중학교1학년 생활시간 유형별 기술통계(2010 비교)	65
표 Ⅳ-26 2010년과 2018년의 사교육을 받는 1순위 이유	73
표 Ⅳ-27 2010년과 2018년의 사교육을 받지 않는 1순위 이유	74
표 Ⅳ-28 2010년과 2018년의 휴대전화 소지율	77
표 Ⅳ-29 2010년과 2018년의 또래관계 조사 결과	78
표 Ⅳ-30 2010년과 2018년의 또래관계 조사 문항	79
표 V-1 생활시간 유형 분석 주요 결과 요약	89
표 V-2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의 과제	92
표 V-3 2013~2018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등록 현황	93
표 V-4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97
표 V-5 청소년 대상 과의존 대응체계 추진계획	102
표 V-6 중학교 교육과정의 매체 활용 관련 성취기준	103
표 V-7 201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108
표 V-8 2018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111
표 V-9 연구 주요결과와 제언	117

그림 목차

그림 IV-1 2018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	33
그림 IV-2 2010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	64
그림 IV-3 2018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	67
그림 IV-4 2010년과 2018년 유희집단(집단1)의 생활시간	68
그림 IV-5 2010년과 2018년 균형집단(집단2)의 생활시간	69
그림 IV-6 2010년과 2018년 학업집단(집단3)의 생활시간	70
그림 V-1 생활시간 유형 분석에 대한 제언	90
그림 V-2 학업집단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96
그림 V-3 무기력집단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100
그림 V-4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	101
그림 V-5 유희집단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105
그림 V-6 생활시간 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107
그림 V-7 사교육 참여율 변화	109
그림 V-8 교과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	110
그림 V-9 연도별 공공도서관 수	113
그림 V-10 생활시간 유형 변화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115

○———— 제1장 서론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 관계, 사회 규범·제도 등을 탐색하는 시기이며(Erikson, 196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동에서 성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생애과정 중 아동·청소년기에는 신체와 사회·정서적 역량, 사회관계와 역할 등 여러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성장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성별, 인종, 국가 등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특성에 따라 성장의 사회맥락과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부모의 양육방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와 또래 집단, 법과 제도, 지역사회 자원과 매체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싼 발달환경 속 다양한 요소들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성장 경험을 가지게 한다. 청소년기의 발달 차이는 성인으로서의 자아와 역할 확립 그리고 성인기 이행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즉, 서로 다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청소년 성장 경험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은 청소년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Larson(2001)은 청소년 발달의 결과는 ‘과거 경험의 합’이며, 생활시간은 그 경험의 양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하였다. 양적인 의미란 동일한 생활시간, 예를 들어 TV시청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콘텐츠를 누구와 함께 혹은 어떠한 맥락에서 시청하는지 등의 질적/내용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략적 수준에서의 함의를 가질 수는 있지만, 생활시간 분석은 청소년

1) 제1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이 어떠한 성장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유용한 시작점이다 (Larson, 2001).

청소년 생활시간을 그들의 성장경험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청소년 성장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사용하면서 대면하며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보다는 온라인에서의 비대면적 상호작용이나 고립이 늘어나고 공동체 역량 저하나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지,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심리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하는 것들이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긴 학습시간과 짧은 신체활동 시간 및 수면 시간으로 인한 청소년 삶의 질 저하에 관한 우려도 있다. 학습은 청소년기에 가장 생산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나, 긴 학습시간은 수면, 식사와 같이 생활필수적인 시간과 운동, 체험 활동 등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시간들을 부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장근영, 김기현, 2009).

IEA(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1995년 이후로 줄곧 최상위권 수준이지만(상경아 외, 2016), 아동의 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수준이며(보건복지부, 2019)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도 회원국 22개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한겨레, 2019. 05. 14.). 학생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도 못 잔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2.7%, 중학생 12.4%, 고등학생 44.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졌으며, 부족한 잠이 아침식사 결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교육부, 2017b). 청소년 매체 사용에 대해서도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의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과의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초4, 중1, 고1 청소년은 조사대상(128만6567명) 중 16%에 달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생활시간은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왔고, 청소년의 생활 패턴 및 이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많은 연구들이 사교육, 게임, 인터넷, 스스로 학습 등 특정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생활시간 활동들이 청소년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 함의를 제공한다(심혜선, 전종설, 2018; 정은진 외, 2017; 서인균, 이연실, 2016; 허은정, 이재덕, 2014). 그러나 총체적 성장경험으로서의 생활시간 분석에는 여러 생활시간 활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하나의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다른 활동시간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체로 부모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구조화된 활동시간의 증가는 비구조화된 활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Hofferth & Sandberg, 2001). 따라서 개별 항목에 사용한 시간의 의미는 다른 항목에 사용한 시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그 기능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Shanahan & Flaherty, 2001).

또한 생활패턴을 몇 가지로 유형화시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볼 경우, 특정 요인이 다양한 활동시간의 배분에 미치는 역동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시간이 많을 수 있고 또한 TV 시청시간이 짧을 수 있는데, 사교육시간이 늘어나면 TV 시청이 가능한 절대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이 둘은 연관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둘을 분리해서 ‘소득이 높을수록 TV시청시간이 줄어든다.’고 결론내리기 보다는 ‘사교육 시간이 많고 TV 시청시간이 적음’ 시간배분 유형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총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현재 청소년의 생활시간 형태를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으로 유형화하고, 생활시간 배분 유형간 특성의 차이 및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가정의 특성 및 부모의 심리상태, 양육태도 등의 가정과 부모 요인이 청소년의

시간배분 패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 현재 청소년이 각자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족도, 행복도 등 여러 특성이 긍정적인 청소년의 생활시간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형변화에 영향을 주는 부모 및 가정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2010년과 2018년의 생활시간 활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유형비교를 통하여 세대 간 비교도 진행할 것이다. 기존 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대 간 비교가 아닌,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점 변화에 따른 생활시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두 시점 사이에 있던 사회문화적, 기술적, 정책적 변화의 효과도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행복하고 성장·발달에는 유익한 생활시간 활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과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생활시간의 영향
- 2. 생활시간 결정변인

청소년은 등교일의 경우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에서의 일과는 개별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간들은 아니다. 따라서 생활시간 활동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주로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있다. 방과 후에 청소년들은 학원, 인터넷강의, 방과후학교, 스스로 학습 등의 학업 및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여가생활 시간으로 독서나 운동, 친구와 놀기도 한다. 또한 매체활용 시간으로 휴대폰, 컴퓨터, TV를 이용하는 시간이 있으며, 가정에서의 생활시간으로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수면시간이 있을 수 있다. 즉, 청소년의 하루 생활시간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면 학습시간, 여가시간, 매체활용 시간, 가족과의 시간, 수면시간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개별 생활시간 활동 또는 총체적 하루 생활시간의 활용 형태는 어떠한지, 생활시간에 영향을 받거나 주는 변인은 무엇인지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활시간의 영향

생활시간 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수면시간에 따른 효과나 수면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 탐색 연구(i.e. 이정진 외, 2013; 정은진 외, 2017; 최경일, 2012), 컴퓨터 이용 시간의 영향 및 이용 시간 조절에 관한 연구(김혜선, 이복희, 2008),

2) 제II 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TV시청 시간 관련(Hardy et al., 2006; Vandewater, Bickham, & Lee, 2006),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영향 연구(서인균, 이연실, 2016; 심혜선, 전종설, 2018), 학습시간에의 영향요인 또는 학습시간과 성취도 간 관련성 분석 연구(백병부, 황여정, 2011; 장상수, 2014; 허은정, 이재덕, 2014) 등 생활시간 활동이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찾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시간은 줄이고, 수면 및 학습 등은 적당한 시간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습시간. 일반적으로 학습시간이 길면 길수록 학업성취는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업집중 시간, 사교육 시간, EBS 수강 시간 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허은정, 이재덕, 2014)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백병부, 황여정(2011)에 따르면 이러한 학습시간에는 부모 학력이 영향을 주고, 사교육 시간은 가정의 경제 수준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장상수(2014)는 부모 및 가정 요인과 학습시간 간의 영향관계를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시간이 길어졌고, 어떤 종류의 학습시간이든 학습시간이 길수록 성취가 개선되었는데, 이러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여가시간. 청소년의 여가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체활동(체육), 친구와 노는 시간, 독서 등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기 체육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는 오랫동안 다양하게 발표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체육활동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와 또래관계 증진, 행복도 상승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게임중독이나 일탈행동 방어 효과까지 확인되었다(김경식, 2016; 서경현, 김은경, 조성현, 2012; 이흥구, 2003). 친구와 노는 시간은 친구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과 놀이를 한다는 두 가지 지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활동이다. 또래관계는 학교생활 적응과 전반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진숙, 김은주 2013; 김경식, 2016)이다. 그리고 놀이는 Vygotsky (1978)에 의하면 사회화의 과정으로, Piaget(1962)에 따르면 현재와 성인기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연습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회로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성은모, 강경균, 2018, 재인용). 마지막으로 독서는 높은 독해력과 창의성을 길러주며(Stanovich, 1986; Csikszentmihalyi, 1990; 왕효성, 2014b 재인용), 문학 독서는 자기 자신, 타자, 세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홍인선, 2012). 지현아(2018)는 쉼터 청소년에게 독서가 발전적 자아상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매체사용 시간. 스마트폰은 주로 과도하게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우나 중독, 문제 행동을 연구주제로 보고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강화하기도 한다(서인균, 이연실, 2016). 또한 공격성을 강화하고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불안 수준을 강화하기도 하였다(심혜선, 전종설, 2018). 컴퓨터의 경우에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신체발달, 식생활 습관 및 영양소 섭취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김혜선, 이복희, 2008) 과도한 TV시청도 청소년의 학업성취(Vandewater, Bickham, & Lee, 2006)와 신체 및 인지적 발달(Hardy et al., 2006)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부모-자녀 대화시간.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심리발달과 사회적응에 기여하며 자녀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최인재, 2007). 최근 MIT와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팀은 아이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로 촬영하여 부모-자녀 간 대화의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뇌의 생물학적 성장에 영향을 주며 특히, 언어 생산과 처리과정을 담당하는 영역의 성장을 강화하

였다. 연구팀은 또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더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하며, 자기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하여 입증하였다(뉴스원, 2019. 04. 15. 재인용).

수면시간. 수면시간은 학습습관에 관한 통제능력, 학업 성적과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충분한 수면 시간은 과체중 및 비만 확률을 줄여주었다(정은진 외, 2017). 수면시간은 또 우울감과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책임감 등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도 관련이 있고(최경일, 2012), 적정 수면시간을 유지한 청소년의 경우 행복도는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낮으며, 우울감과 자살 생각, 음주 및 흡연 등 건강 위해행동 경험은 가장 적었다(이정진 외, 2013).

2. 생활시간 결정변인

하루 생활시간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로서 Shanahan & Flaherty (2001)는 청소년의 시간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시간사용 패턴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생활시간 양상을 다른 나라 및 문화권과 비교한 연구(김외숙, 박은정, 2012; 오만석, 2010; 장근영, 김기현, 2009; Larson, 2001), 생활시간 차이에 따른 역량 및 특성 비교(Ferrar et al., 2012; Hofferth & Sanderg, 2001), 개별 청소년 생활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 탐색 연구(박현정, 손윤희, 김전옥, 2017; 송유진, 2013), 연령이나 시대 변화에 따른 생활시간 활용 양상 차이에 주목한 연구(하문선, 2017; Zick, 2010; Olds et al., 2008) 등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생활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학력, 근로시간, 경제수준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도 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과 문화권 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 기존 청소년 시간사용과 부모 및 가정요인의 연관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요인과 학습관련 시간의 관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박민자, 손문금, 2007; 박현정, 손윤희, 김전옥, 2017; 백병부, 황여정, 2011; 송유진 2013), 학습관련 시간 이외에 TV시청시간, 게임시간 등과 부모요인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관련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김우찬, 이윤석, 2009; 박은영, 김진옥, 2016). 다양한 활동시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활시간 배분형태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방과후 생활시간 활용을 유형화했다(박현정, 손윤희, 김전옥, 2017).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의 시간활용 유형이 자기주도학습, 공부병행, 여가위주, 사교육 의존집단 등 4개 집단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 SES, 어머니의 근로여부 등이 집단을 변별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생활시간 관리 혹은 방임의 정도는 상당부분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들과 자녀의 시간배분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수면시간(김지윤 외, 2018)과 양육태도의 연관성을 탐색한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애정적, 감독적, 합리적 설명)가 수면시간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사용시간(김동하, 2017; 조성연, 2003)과 양육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강압적 양육태도 및 방임 등이 인터넷 사용시간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나는 등 특정한 활동시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정윤과 전유진(2016)의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활시간을 공부시간과 자유활동시간으로 나누어 부모의 양육방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과잉간섭이나 감독적 양육태도를 덜 취하고, 비밀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공부시간 사용이 길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양육태도를 취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유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방식을 가구소득과 학교 밖 학업 시간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도 높아지고,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혼자공부시간이 길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정혜지, 주은선, 2017).

이상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생활 활동 시간을 ‘시간배분’의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를 가정배경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특성과 연관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학습·심리적 특성을 연관시켜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생활시간 배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 제3장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 2. 연구 변인 및 모형

1. 분석 자료

KCYPS 2018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17개 시도를 층으로 하되, 각 시도 내에서도 지역규모에 따라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부 시도는 층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시도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 수를 비례 배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초4 코호트는 2,607명의 청소년과 그 보호자, 중1 코호트는 2,590명 청소년과 그 보호자로 최종 패널을 구축하였다. KCYPS 2018의 조사대상 및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3) 제Ⅲ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 김준엽 교수가 공동 작성하였음.

표 III-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개요4)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과 보호자	중학교 1학년과 보호자
표본 수	2,607명	2,590여명
조사방법	TAPI :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조사내용	• 아동·청소년 :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본 분석의 연구 대상은 중1 코호트 2,589명으로 KCYPS 2018 중1 코호트 2,590명 중 생활시간 응답 결과에 불성실 응답이 의심되는 한 사례(모든 항목 응답 값이 3시간 이상임)를 제외하여 확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 특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대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404(54.2%)	거주지	광주	71(2.7%)
	여자	1,185(45.8%)		대전	75(2.9%)
나이	만12세 이하	30(1.2%)		울산	52(2.0%)
	만13세	2,546(98.3%)		세종	43(1.7%)
	만14세 이상	13(0.5%)		경기	619(23.9%)
가구구성	양부모가정	2,350(90.8%)		강원	94(3.6%)
	한부모가정	223(8.6%)		충북	112(4.3%)
	조손가정	12(0.5%)		충남	110(4.2%)
	기타	4(0.2%)		전북	119(4.6%)
거주지	서울	421(16.3%)		전남	78(3.0%)
	부산	145(5.6%)		경북	120(4.6%)
	대구	120(4.6%)		경남	175(6.8%)
	인천	197(7.6%)		제주	38(1.5%)

4) 표 출처: 제9차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18, p.53)

2. 연구 변인 및 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한 하루 생활을 위한 시사점 도출과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3 청소년 생활시간 유형 분석 구조



첫 번째로, 2018년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내 존재하는 하위집단을 생활시간 활용 패턴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각 잠재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정서, 신체발달, 가정배경, 학업 관련 요인 등을 일원분산분석과 사후분석으로 비교한다. 두 번째로, 유형을 결정짓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 때,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부모 및 가정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비교를 위하여 2010년 중학교 1학년 코호트와 잠재집단 수 및 유형을 비교한다. KCYPS 2018에서 설문 문항을 신규 투입 또는 변경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 생활시간 변인을 추출하여 각각 잠재집단을 분류한 후 이 결과를 비교한다. 위 분석에는 Mplus ver.7, spss ver.25를 활용한다.

1) 유형 특성 분석

KCYPS 2018 중학교 1학년에 존재하는 생활시간 유형은 몇 개이며,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잠재집단분석(LCA)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은 전체 자료 내 존재하는 하위집단(subpopulation)을 분류하는 모형인 유한혼합모형(Finite-Mixture models)의 한 종류로 측정 척도에 따라 잠재집단분석 또는 잠재계층분석,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 Analysis, Muthen & Muthen, 2012) 분석 등으로 불린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라는 한 집단 내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개인들의 묶음, 즉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는지 자료에 기초하여 검증하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f(x_i|\theta) = \sum_{k=1}^K \pi_k f_k(x_i|\theta_k)$$

위 식에서 x_i 는 개별 연구 대상 i 의 응답 벡터, π_k 는 잠재집단 K 에 속할 확률이며, θ_k 는 집단 k 의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로 $(\mu_k, \sum_k)$ 와 같다. 따라서 f_k 는 관찰변수의 확률밀도함수이다. 잠재집단의 수는 AIC, BIC, ABIC의 비교적합도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2018년에는 4개의 생활시간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에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집단(학업집단)과 스마트폰, TV, 컴퓨터, 친구와 놀기 등 놀이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유희집단)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간활용이 적은 집단(무기력집단)과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집단(균형집단) 4가지로 분류되었다. 생활시간 활동으로 포함된 조사 항목은 <표 III-4>와 같고, 조사 항목별 전체 응답 빈도 및 조사 항목에 따른 생활시간 유형별 응답 빈도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III-4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 항목

(N=2,589)

항목	내용	값
수면	하루 수면 시간	1 = 5시간 이하 5 = 9시간 이하 2 = 6시간 이하 6 = 10시간 이하 3 = 7시간 이하 7 = 10시간 초과 4 = 8시간 이하
부모대화	부모님(양육자)과 대화시간	1 = 전혀 안 함 2 = 30분 미만 3 = 30분~1시간 미만 4 = 1시간~2시간 미만 5 = 2시간~3시간 미만 6 = 3시간~4시간 미만 7 = 4시간 이상
학원	학원 및 과외 시간	
인터넷강의	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방과후학교	방과 후 학교 시간	
공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독서	독서 시간	
운동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휴대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컴퓨터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TV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친구	친구들과 노는 시간	

분류된 4개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에 포함된 청소년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심리·정서적 특성 및 학업관련 변인, 부모 및 가정배경 관련 특성을 선행연구 문헌 고찰을 통하여 선정한 후 일원분산분석, 교차분석으로 비교한다. 또한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일원분산분석은 독립변수의 효과 검증이 아닌 집단 간 차이 검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인 값(코딩 값)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생활시간 유형별 특성 비교변인

(N=2,589)

변인	내용	값
신체발달	아침식사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 한 날 기입(0~7일)
	건강상태	건강 상태 평가 1 = 전혀 건강하지 않다 2 =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 = 건강한 편이다 4 = 매우 건강하다
	운동시간	지난 일주일 간 운동 시간 1 = 없다 2 = 1시간 3 = 2시간 4 = 3시간 5 = 4시간 이상
	BMI	체중(kg)/신장(m ²) 정상BMI[20~25]
심리정서	행복감	문15a-1) ~ 15a-2) 4점척도 2개 문항 합
	만족도	문14-1) ~ 14-5) 4점척도 5개 문항 합
	자존감	문16-1) ~ 16-10) 4점척도 10개 문항 합
	우울/불안	문17-27) ~ 17-36) 4점척도 10개 문항 합
학교 학업	학업무기력	문10-1) ~ 10-16) 4점척도 16개 문항 합
	학업열의	문9-1) ~ 9-16)
	성취수준	지난학기(2018-1학기) 성적 1 = 매우 불만족(매우 못함) 2 = 불만족(못함) 3 = 보통
	성취만족	지난학기(2018-1학기) 성적 만족도 4 = 만족(잘함) 5 = 매우 만족(매우 잘함)
	학교생활만족	지난학기(2018-1학기) 학교생활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 1 = 고등학교 졸업 2 =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 = 4년제 대학교 졸업 4 =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진학진로	직업결정	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 1 =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2 =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3 =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변인	내용	값
도래관계	긍정관계	문23-1) ~ 23-8) 4점척도 8개 문항 합
	부정관계	문23-9) ~ 23-13) 4점척도 5개 문항 합
	교우관계	문23-1) ~ 23-13) 4점척도 13개 문항 합
	협동심	문18-1) ~ 18-14) 4점척도 14개 문항 합
스마트폰 사용	의존도	문2-2-1) ~ 2-2-15) 4점척도 2개 문항 합
	사용목적별 빈도	- 가족통화, 가족문자 - 친구통화, 친구문자 - SNS, 게임, 사진/동영상 촬영 - 영상시청, 음악듣기 - 정보검색, 문서보기 0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 =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경제배경	월 소득	(보호자)월평균 가구소득 1 = 소득 없음 2 = 100만원 미만 3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2 = 1,000만원 이상
	경제수준	(보호자)가정 경제수준 평가 1 = 최하 2 = 하 3 = 보통 4 = 상 5 = 최상

2) 유형 결정요인 분석

잠재집단분석에서 드러난 중학교 1학년 평일 생활시간 활용 4개 집단(유희, 균형, 무기력, 학업)에 대하여 각 집단별로 가정배경,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모의 양육특성 및 태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관련 변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우선, 해당 부모 변인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각 변인에 대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분산분석으로 확인한 후 집단 대비계수를 활용한 사후 분석을 진행한다.

기술통계 및 전체적인 시간활용 수준에서 학업집단과 균형집단이 유사성을 보이고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과는 차별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한다. 집단대비계수를 활용하여 두 집단씩을 통합하여 학업 및 균형집단과 무기력 및 유희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 보다 미시적으로는 유사한 집단들 간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학업집단과 균형집단,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부모관련 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후, 부모수준의 시간배분 유형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집단을 종속변수로, 부모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⁵⁾한다.

집단 k를 기준집단으로 한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집단 k 대비 집단 i에 속할 로짓(log-odds)은 예측변인 X의 선형결합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log\left(\frac{p(\text{group} = i)}{p(\text{group} = k)}\right) = \beta_{i0} + \sum_{j=1}^J \beta_{ij} X_j,$$

본 분석에서 범주형 예측변수 (모취업여부, 아침식사 횟수, 기대학력)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z점수로 표준화하여 투입한다. 분석결과는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되는 균형집단과 중점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무기력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위의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5) 이 분석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정도는 시간배분 결정요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표 III-6 생활시간 결정요인으로서의 보호자 변인

(N=2,589)

변인		내용	값
배경	월 소득	(보호자)월평균 가구소득	1 = 소득 없음 2 = 100만원 미만 3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2 = 1,000만원 이상
	모취업	지난 일주일 간 근로 여부	1 = 예, 0 = 아니오
	모학력	어머니 최종학력	교육연한 (안 다음 0 ~대학원졸 18)
부모 특성	행복감	문12a-1) ~ 15a-2)	4점척도 2개 문항 합
	자존감	문13-1) ~ 13-10)	4점척도 10개 문항 합
	그릿	문15-1) ~ 15-8)	4점척도 8개 문항 합
	건강	건강 상태 평가	1 = 전혀 건강하지 않다 2 =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 = 건강한 편이다 4 = 매우 건강하다
양육특 성 및 태도	아침식사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 한 날	기입(0~7일)
	따스함	(청소년) 문22-1) ~ 문22-4)	4점척도 4개 문항 합
	거부	(청소년) 문22-5) ~ 문22-8)	
	자율지지	(청소년) 문22-9) ~ 문22-12)	
	강요	(청소년) 문22-13) ~ 문22-16)	
	구조제공	(청소년) 문22-17) ~ 문22-20)	
	비일관성	(청소년) 문22-21) ~ 문22-24)	
기대와 만족	기대학력	자녀에 기대하는 학력수준	1 = 고등학교 졸업 2 = 전문대학 졸업 3 = 4년제 대학교 졸업 4 = 대학원 이상
	성취만족	지난학기(2018-1학기) 성적	1 = 매우 불만족(매우 못함) 2 = 불만족(못함)
	학교생활 만족	지난학기(2018-1학기) 학교생활 만족도	3 = 보통 4 = 만족(잘함) 5 = 매우 만족(매우 잘함)

3) 세대 간 비교·분석

세대 변화에 따른 청소년 생활시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와 KCYPS 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 간 생활시간 유형을 비교한다. 2010년과 연계 가능한 조사문항을 선별하여 이 생활시간 영역들로 다시 유형을 구분하고 이 결과를 2010년의 결과와 비교할 예정이다. 잠재집단분석을 사용하며, 연계 가능한 생활시간 영역별 2010년 중1의 생활시간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I-7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 항목

(2018N=2,589, 2010N=2,351)

항목	내용	값	조사여부	
수면	하루 수면 시간	1 = 5시간 이하 2 = 6시간 이하 3 = 7시간 이하 4 = 8시간 이하 5 = 9시간 이하 6 = 10시간 이하 7 = 10시간 초과	○	○
학원	학원 및 과외 시간	1 = 전혀 안 함	○	○
공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2 = 30분 미만	△	○
독서	독서 시간	3 = 30분~1시간 미만	○	○
컴퓨터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4 = 1시간~2시간 미만	○	○
TV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5 = 2시간~3시간 미만	○	○
친구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6 = 3시간~4시간 미만	○	○
		7 = 4시간 이상	○	○

조사문항 중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의 경우 2010년은 ‘학교 숙제’, ‘학원 및 과외 숙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나, 2018년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 학원 및 학교숙제 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0년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세 항목의 합으로 투입하였다. 2010년 보다 평균 시간에서 약 1점정도 하락하였으나, 질문의 포함범위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10년과 비교할 때 컴퓨터 사용이 소폭 줄었고 TV 시청 시간도 평균1점 가량 하락하였으나, 2018년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관한 조사 항목이 2010년과의 비교에서 제외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 제4장 결 과

- 1. 유형 특성 분석 결과
- 2. 유형 결정요인 분석 결과
- 3. 세대 간 비교·분석 결과

1. 유형 특성 분석 결과

1) 2018년 생활시간 유형 분류

KCYPS 2018 중학교 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별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 2018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별 기술통계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428(16.5%)	648(25.0%)	925(35.7%)	588(22.7%)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수면	3.96(1.11)	4.43(0.98)	4.50(0.86)	4.06(0.93)	4.29(0.98)
부모대화	3.91(1.70)	4.68(1.35)	3.33(1.06)	3.77(1.36)	3.86(1.42)
학원	3.43(2.21)	4.54(1.87)	3.83(1.55)	5.50(1.13)	4.32(1.83)
인터넷강의	2.24(2.08)	2.80(1.56)	1.83(1.27)	1.97(1.34)	2.17(1.57)
방과후학교	1.95(1.66)	2.21(1.67)	1.66(1.19)	1.34(1.03)	1.77(1.42)
공부	2.84(1.83)	4.47(1.14)	2.78(0.86)	4.30(1.31)	3.56(1.47)
독서	2.20(1.63)	3.46(1.13)	1.86(0.77)	2.40(1.13)	2.44(1.28)
운동	3.35(2.06)	3.91(1.39)	2.69(1.25)	2.18(1.08)	2.99(1.56)
휴대폰	5.95(1.48)	4.13(1.22)	4.37(1.09)	3.56(1.36)	4.39(1.47)
컴퓨터	2.96(2.21)	2.48(1.51)	2.41(1.48)	1.48(0.92)	2.31(1.61)
TV	3.19(1.97)	3.02(1.42)	2.68(1.16)	1.94(1.07)	2.68(1.44)
친구	4.72(2.11)	3.88(1.61)	3.35(1.48)	1.98(1.03)	3.40(1.79)

6) 제IV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 김준엽 교수가 공동 작성하였음.

분석결과, 2018년 중학교 1학년 2,589명에 시간활용 양상이 다른 4개의 하위 집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집단의 이름을 부여하였으며, 각각 유희와 균형, 무기력, 학업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명은 다른 집단의 시간 사용 양상과 비교하여 명칭을 부여한 것이므로 단지 상대비교에 의한 명칭 구분이며, 절대적 기준에 의해 특정 집단을 긍정적 집단 혹은 부정적 집단으로 해석하거나 그러한 의미가 전달되도록 명명한 것은 아니다.

2018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수면’ 평균은 4.29로 수면시간은 대체로 7시간~8시간 정도 자는 청소년이 가장 많고, 7시간 미만 보다는 8시간 이상 자는 청소년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는 4.32로 1시간~2시간 정도로 보이며, 인터넷 강의는 2.17, 방과후학교는 1.77로 하루 30분 내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공부’는 3.56으로 1시간 내외 정도이고, ‘학원’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독서’는 2.44로 30분 정도 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2.31,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2.68로 독서와 비슷한 정도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여가활동 중 가장 긴 시간을 사용하는 항목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인데, 4.39로 하루 1시간~2시간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운동’하는 시간은 2.99로 30분 내외의 시간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운동’하는 시간에는 학교 체육활동을 포함하여 답하기 때문에 실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노는 시간은 여가활동 중 ‘휴대폰’ 다음으로 길었는데, 3.40으로 약 1시간 내외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생활시간 조사 문항은 범주형 척도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평균값으로 대략적 시간을 추정하여 서술하였으나, 실제 응답 값인 범주별 빈도는 [부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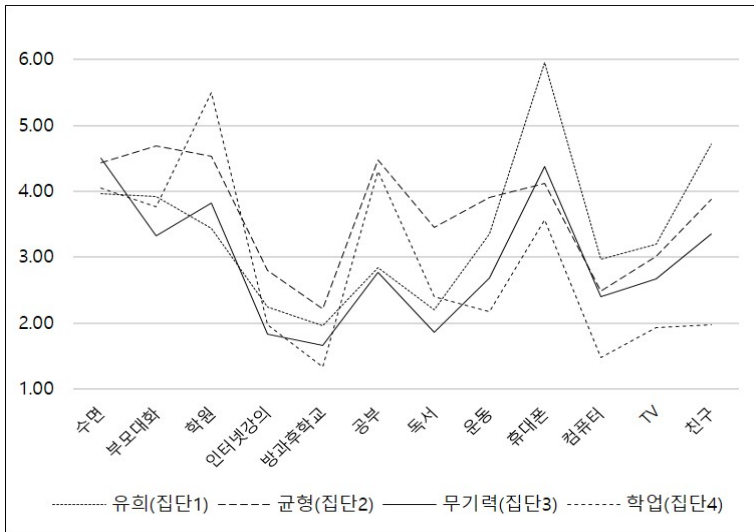


그림 IV-1 2018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

집단별 생활시간 사용 형태를 보면 먼저 유희집단(집단1)은 여가시간 중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 TV시청 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집단(집단2)은 학습시간과 여가시간 양쪽에 모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대체로 고르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 면에서는 ‘학원’의 경우는 학업집단(집단4)보다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강의’와 ‘방과후학교’, 스스로 학습을 의미하는 ‘공부’ 시간은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중 ‘독서’와 ‘운동’ 시간은 4개 집단 중 가장 길고, ‘휴대폰’ ‘컴퓨터’, ‘TV’, ‘친구’와 노는 시간 역시 4개 집단 중 2번째 정도로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수면도 긴 편이고, 특징적인 것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이다. 균형집단 청소년은 조사항목에 포함된 청소년의 주요 활동시간 모두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시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대조적으로 무기력집단(집단3)은 조사항목 모두에 비교적 짧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비롯하여 학습시간 항목인 ‘학원’, ‘인터넷강의’, ‘방과후학교’, ‘공부’는 가장 적거나 두 번째로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가 시간 중에서도 ‘독서’, ‘운동’, ‘TV’, ‘친구’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적거나 두 번째로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러 항목 중 비교적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면’과 ‘휴대폰’, ‘컴퓨터’였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균형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기력집단이 조사한 항목 외의 다른 활동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집단 특성 해석과 집단 명명을 위하여 타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먼저 국외연구와 통계청(2015)의 2014 생활시간조사 등의 조사 항목에서는 KCYPS 2018에서 질문하는 항목 외에 아르바이트 및 근로시간, 종교 활동 시간, 가사를 돕는 시간,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 등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국내 청소년 대상으로 위 항목을 조사한 2019 아동행복생활지수 연구에서 2018년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3학년 학생의 평일 평균 등하교시간은 25분, 집안일을 돕는 시간은 19분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종교 활동, 봉사, 아르바이트, 동아리를 기타시간으로 묶어 조사한 결과,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8분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학생은 전체에 4.4%로 일부의 학생만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서도 본 연구 대상인 중학교 1학년의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KCYPS 2018의 각종 체험활동 경험 유무 분석 결과에서도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경험이 없거나 연간 2회 이하인 경우가 80% 내외 수준이었다. 반면, 별다른 활동 없이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은 하루 49분 정도로 위 항목들에 비하여 길었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집단3을 다른 집단에 비하여 시간 사용이 적거나 활동성이 낮은 무기력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집단명은 상대비교에 의한 것으로 본 분석 결과 내에서만 해당되는 명칭임을 유의해야한다.

학업집단(집단4)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 특히 길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두 번째로 길었다. 반면, 학습시간 중 ‘인터넷 강의’와 ‘방과후학교’에는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학습과 관련해서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긴 집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가시간 중 ‘독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집단과 가장 큰 차이로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항목은 ‘친구’와 노는 시간 이었는데, 평균과 비교할 때 1.4점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4개의 집단은 각각 학습 보다는 여가/유희 시간을 길게 보내는 집단(유희집단) 16.5%,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을 고르게 많이 사용하는 집단(균형집단) 25.0%, 조사 항목 전반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학습관련 항목에 시간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무기력집단) 35.7%, 학습시간 중 학원에 있는 시간이 특히 길고, 여가시간이 적은 집단(학업집단) 22.7%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의 크기를 보면 무기력집단이 925명(35.7%)로 가장 크다. 그렇지만 무기력 집단을 4개의 집단 중의 하나로 해석하기 보다는 ‘무엇’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명명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각각 여가, 학습 또는 전반에 걸쳐 시간을 길게 쓰고 있는 청소년 64.3%와 그렇지 않은 청소년 35.7%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2) 2018년 생활시간 유형별 특성

시간사용 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한 네 개 유형을 신체발달, 심리 및 정서, 학교 및 학업, 진학 및 진로, 또래관계, 스마트폰 사용, 경제적 배경 면에서 어떠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지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KCYPS 2018의 관련된 조사 결과를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1) 신체발달

신체발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아침식사를 한 날(아침식사)’,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운동시간)’⁷⁾,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또래 친구들과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⁸⁾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IV-2 생활시간 유형별 신체발달 특성 기술통계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428(16.5%)	648(25.0%)	925(35.7%)	588(22.7%)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신체 발달	아침식사	3.89(2.80)	5.44(2.22)	4.80(2.55)	5.33(2.23)	4.93(2.50)
	운동시간	2.02(1.54)	2.52(1.36)	1.88(1.43)	1.73(1.35)	2.03(1.45)
	BMI	21.05(3.90)	20.20(3.35)	20.44(3.41)	20.37(3.26)	20.47(3.45)
	건강상태	3.27(0.67)	3.38(0.60)	3.26(0.61)	3.25(0.62)	3.29(0.62)

7) ‘① 없다, ② 1시간, ③ 2시간, ④ 3시간, ⑤ 4시간 이상’ 척도로 조사함.

8)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척도로 조사함.

아침식사의 경우 전체 평균적으로 4.93일 약 5일 정도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균형집단과 학업집단이 5일 이상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무기력집단 4.8일, 유희집단이 3.89일로 가장 적었다. 운동시간은 평균 2.03으로 약 1시간 정도이다. 집단별로는 균형집단이 가장 긴 시간 운동하였고, 유희집단, 무기력집단, 학업집단 순이었다. BMI의 경우 평균 20.47이고 집단별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유희집단의 BMI가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에 관한 자신의 평가는 ‘건강한 편’에서 ‘매우 건강’ 사이의 응답으로 집단별 유사하였다. 이 같은 결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생활시간 유형별 신체발달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구분		ANOVA		사후비교(Scheffe)
		F	p-value	
신체 발달	아침식사	41.268	0.000	균형=학업 > 무기력 > 유희
	운동시간	37.711	0.000	균형 > 유희=무기력, 유희 > 학업
	BMI	5.524	0.001	유희 > 균형=무기력=학업
	건강상태	6.865	0.000	균형 > 유희=무기력=학업

신체발달 영역의 모든 항목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침식사를 한 날’은 균형집단과 학업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 순으로 아침식사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운동시간은 균형집단이 가장 길고 학업집단이 가장 적었으며, BMI는 유희집단에서 가장 높고, 건강상태는 균형집단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종합하면 유희집단은 아침식사 횟수가 적고, BMI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업집단은 운동시간이 적었고, 균형집단은 아침식사 횟수와 운동시간이 길며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 심리 및 정서

심리 및 정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행복감, 만족도, 자존감, 우울 및 불안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항목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4>와 같고, 조사 문항은 <표 IV-5>와 같다.

표 IV-4 생활시간 유형별 심리 및 정서 특성 기술통계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428(16.5%)	648(25.0%)	925(35.7%)	588(22.7%)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심리 정서	행복감	6.12(1.49)	6.72(1.16)	6.34(1.18)	6.37(1.15)	6.40(1.24)
	만족도	13.25(3.54)	14.69(2.84)	13.69(2.83)	13.76(2.91)	13.88(3.02)
	자존감	29.67(5.72)	32.01(4.91)	30.38(4.82)	31.19(4.63)	30.85(5.03)
	우울/불안	20.07(7.23)	16.55(6.07)	18.39(6.03)	17.44(6.13)	17.99(6.38)

‘행복감’의 경우 평균 6.40으로 대체로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집단별로는 균형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유희집단이 낮았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13.88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¹⁰⁾ 만족도 역시 행복도와 마찬가지로 균형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유희집단이 낮았다. 자존감의 평균은 30.85로 대체로 자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집단별로 보면 균형집단이 가장 높고 유희집단이 가장 낮다. 우울 및 불안 수준은 평균 17.99로 대체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¹²⁾ 유희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9) 2개 문항 4점 척도의 합이므로 6점에 가까우면 ‘행복한 사람’, 8점에 가까우면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음

10) 5개 문항 4점 척도의 합이므로 10점에 가까우면 ‘만족하지 않는 편’, 15점에 가까우면 ‘만족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음

11) 10개 문항 4점 척도의 합이므로 30점에 가까우면 ‘자존감이 있는 편’, 40점에 가까우면 ‘자존감이 매우 있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V-5 심리 및 정서 특성 조사문항

행복감	1) 전반적으로 나는 ...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만족도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자존감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역)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역)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역) 10)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우울/불안	27) 기운이 별로 없다 2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29) 걱정이 많다 3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31) 울기를 잘한다 32)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33) 외롭다 34)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35)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36) 모든 일이 힘들다

12) 10개 문항 4점 척도의 합이므로 10점에 가까우면 '전혀 우울/불안하지 않음', 20점에 가까우면 '우울/불안하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V-6 생활시간 유형별 심리 및 정서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구분		ANOVA		사후비교(Scheffe)
		F	p-value	
심리 정서	행복감	22.633	0.000	균형 > 무기력=학업 > 유희
	만족도	23.886	0.000	균형 > 유희=무기력=학업
	자존감	23.584	0.000	균형 > 학업 > 유희=무기력
	우울/불안	29.858	0.000	유희 > 무기력 > 학업=균형

심리 및 정서 영역의 모든 항목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 및 불안을 제외한 행복감, 만족도, 자존감은 균형집단에서 가장 높고, 유희집단이 가장 낮았다. 무기력집단과 학업집단은 요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행복감은 무기력집단과 학업집단이 유사하였고, 만족도는 균형집단을 제외한 세 집단이 유사하였으며, 자존감의 경우에만 학업집단이 두 집단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우울 및 불안 수준은 유희집단이 가장 높고, 무기력집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3) 학교 및 학업

학교 및 학업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성취수준)¹³⁾,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만족도(성취만족)¹⁴⁾, 학교생활 만족도¹⁵⁾, 학업무기력, 학업열의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항목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7>과 같고,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조사 문항은 <표 IV-8>과 같다.

13)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⑥ 잘 모르겠음' 척도로 조사하였고, '⑥ 잘 모르겠음'은 분석에서 제외함

14)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잘 모르겠음' 척도로 조사하였고, '⑥ 잘 모르겠음'은 분석에서 제외함

15)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잘 모르겠음' 척도로 조사하였고, '⑥ 잘 모르겠음'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IV-7 생활시간 유형별 학교 및 학업 특성 기술통계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428(16.5%)	648(25.0%)	925(35.7%)	588(22.7%)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학업 학교	성취수준	3.10(0.96)	3.58(0.90)	3.28(0.84)	3.69(0.94)	3.42(0.92)
	성취만족	3.26(1.02)	3.56(1.00)	3.39(0.93)	3.49(1.05)	3.43(1.00)
	학교생활 만족	3.96(0.99)	4.22(0.86)	4.03(0.88)	4.04(0.85)	4.07(0.89)
	학업 무기력	34.18(9.26)	27.60(8.08)	31.77(7.89)	27.72(7.81)	30.21(8.55)
	학업열의	35.01(9.50)	42.92(8.46)	37.62(7.59)	42.16(8.22)	39.54(8.82)

‘성취수준’의 경우 평균 3.42로 대체로 ‘보통’에서 ‘잘함’ 사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학업집단이 가장 잘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유희집단이 가장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모든 집단에서 ‘보통’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 즉, ‘성취만족’은 평균 3.43으로 대체로 ‘보통’에서 ‘만족’ 사이로 평가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균형집단의 만족이 가장 높고, 유희집단의 만족이 가장 낮았다. 유희집단의 경우는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을 낮게 평가한 만큼 만족도도 낮았다. 학업집단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해서는 가장 높게 인식한 반면 만족도는 그에 비해 낮았고, 반대로 균형집단은 학업성취 수준은 학업집단 보다 낮게 인식했지만 만족도는 가장 높았다. ‘학교생활 만족’은 4.07로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보다 높았는데,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균형집단에서 가장 높고, 나머지 집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학업무기력의 평균은 30.21로 ‘무기력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⁶⁾ 집단별로는 유희집단의 학업무기력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균형집단과 학업집단이

16) 16개 문항 4점 척도의 합이므로 16점에 가까우면 ‘전혀 무기력하지 않음’, 32점에 가까우면 ‘무기력하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

유사하게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학업열의의 평균은 39.54로 ‘보통’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¹⁷⁾

표 IV-8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 특성 조사 문항

학업 열의	헌신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공부를 하면 부듯해진다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활기	5)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6)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7)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8)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효능감	9) 나는 공부를 잘한다 10)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1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1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몰두	13)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1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폭 빠진다 15)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16)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학업 무기력	통제신념 결여	1)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4)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학습동기 결여	5)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6)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7)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8)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긍정정서 결여	9)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10) 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11)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12)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도 기쁘지 않다
	능동수행 결여	13)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14)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15)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16) 스스로 알아서 학습계획을 짜본 적이 없다

17) 16개 문항 4점 척도의 합이므로 32점에 가까우면 ‘열의 없는 편’, 48점에 가까우면 ‘열의 있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약 40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가 나와 보통으로 해석함.

표 IV-9 생활시간 유형별 학교 및 학업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구분		ANOVA		사후비교(Scheffe)
		F	p-value	
학업 학교	성취수준	49.200	0.000	균형=학업 > 무기력 > 유희
	성취만족	8.543	0.000	균형 > 무기력=유희, 학업 > 유희
	학교생활만족	8.781	0.000	균형 > 유희=무기력=학업
	학업무기력	85.491	0.000	유희 > 무기력 > 균형=학업
	학업열의	114.505	0.000	균형=학업 > 무기력 > 유희

학교 및 학업 영역의 모든 항목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무기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희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균형집단의 점수는 높았다. 학업집단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학교 생활 만족도는 유희 및 무기력집단과 유사하였다. 무기력집단은 성취만족과 학교 생활만족이 낮은 편이었고,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와 학업무기력, 학업열의 수준은 유희집단 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4) 진학 및 진로

진학 및 진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장래에 희망하는 교육 수준과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비교하였다. 먼저 장래희망 교육 수준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IV-10>과 같고, 장래직업 결정여부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0 생활시간 유형별 장래희망 교육 수준 교차분석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잘 모르겠음	142 (33.2%)	165 (25.5%)	264 (28.5%)	127 (21.6%)	698 (27.0%)
고등학교 졸업	50 (11.7%)	30 (4.6%)	65 (7.0%)	23 (3.9%)	168 (6.5%)
전문대학 졸업	54 (12.6%)	61 (9.4%)	103 (11.1%)	21 (3.6%)	239 (9.2%)
4년제 대학 졸업	156 (36.4%)	310 (47.8%)	445 (48.1%)	323 (54.9%)	1,234 (47.7%)
대학원 이상	26 (6.1%)	82 (12.7%)	48 (5.2%)	94 (16.0%)	250 (9.7%)
집단 전체	428 (100%)	648 (100%)	925 (100%)	588 (100%)	2,589 (100%)

$$\chi^2 = 143.936 \text{ (df = 12, } p < .001)$$

‘장래희망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는 27.0%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집단별로 볼 때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학업집단에서 가장 낮고, 유희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유희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무기력집단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 응답비율은 학업집단에서 가장 높고, 유희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대학원 이상’을 희망한 응답 비율은 학업집단에서 가장 높고, 균형집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생활시간 유형별 장래직업 결정여부 교차분석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미결정	116 (27.1%)	111 (17.1%)	285 (30.8%)	138 (23.5%)	350 (13.5%)
대략적 결정	180 (42.1%)	326 (50.3%)	437 (47.2%)	294 (50.0%)	1,237 (47.8%)
구체적 결정	132 (30.8%)	211 (32.6%)	203 (21.9%)	156 (26.5%)	702 (27.1%)
집단 전체	428 (100%)	648 (100%)	925 (100%)	588 (100%)	2,589 (100%)

$$\chi^2 = 52.654 \text{ (df = 6, } p < .001)$$

‘장래직업 결정여부’는 대략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전체의 47.8%로 가장 높았고, 27.1%는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장래 희망하는 직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무기력집단이 30.8%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희집단이 27.1%, 학업집단 23.5%, 균형집단 17.1%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균형집단이 32.6%로 가장 높고, 유희집단이 30.8%로 뒤를 이었다. 유희집단 내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와 구체적으로 결정한 응답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양분되는 결과를 보였다.

(5) 또래관계

또래관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긍정관계와 부정관계로 구성된 교우관계, 그리고 협동심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항목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12>와 같고, 조사 문항은 <표 IV-13>과 같다.

표 IV-12 생활시간 유형별 또래관계 특성 기술통계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428(16.5%)	648(25.0%)	925(35.7%)	588(22.7%)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또래 관계	긍정관계	24.89(4.83)	25.48(4.15)	24.75(4.07)	24.49(4.23)	24.90(4.27)
	부정관계	9.82(2.59)	8.96(2.64)	9.54(2.50)	8.76(2.62)	9.26(2.61)
	교우관계	40.07(5.81)	41.52(5.76)	40.20(5.35)	40.73(5.62)	40.63(5.62)
	협동심	40.21(8.15)	43.59(7.05)	40.79(6.74)	42.97(6.93)	41.89(7.23)

※ '교우관계'는 긍정관계와 부정관계(역)를 합산한 값임

‘긍정관계’의 전체 평균은 24.90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긍정적 교우관계는 균형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유희집단, 무기력집단, 학업집단 순이었다. ‘부정관계’의 전체 평균은 9.26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교우관계는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부정적 교우관계는 유희집단에서 가장 높고, 무기력집단, 균형집단, 학업집단 순이었다. 종합하면 균형집단은 긍정관계가 높고, 부정관계는 낮아 교우관계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학업집단은 긍정관계는 약간 낮았지만 부정관계도 낮아 두 번째로 높은 교우관계 점수를 보였다. 다음은 무기력집단이었고, 유희집단은 긍정관계는 높은 편이었지만 부정관계가

18) 8개 문항 4점 척도의 합이므로 24점에 가까우면 ‘긍정적 교우관계를 가짐’으로 해석할 수 있음

19) 5개 문항 4점 척도의 합이므로 10점에 가까우면 ‘부정적 교우관계를 가지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

가장 높게 나타나서 교우관계 점수는 가장 낮았다.

‘협동심’의 전체 평균은 41.89로 대체로 협동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집단별로 보면, 균형집단의 협동심이 가장 높고, 다음은 학업집단, 무기력집단, 유희집단 순이었다.

표 IV-13 또래관계 특성 조사 문항

긍정 관계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부정 관계	9)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역)
	10)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역)
	11)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역)
	12)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역)
	1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역)
협 동 심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거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한다

20) 14개 문항 4점 척도의 합이므로 42점에 가까우면 ‘협동심이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많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표 IV-14 생활시간 유형별 또래관계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구분		ANOVA		사후비교(Scheffe)
		F	p-value	
또래 관계	긍정관계	6.269	0.000	균형 > 무기력=학업
	부정관계	21.057	0.000	유희=무기력 > 균형=학업
	교우관계	8.809	0.000	균형 > 무기력=유희
	협동심	32.192	0.000	균형=학업 > 무기력=유희

또래관계 영역의 모든 항목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관계는 균형집단이 무기력과 학업집단에 비해 높았고, 부정관계는 유희집단과 무기력집단이 균형집단과 학업집단에 비해 높았다. 긍정관계와 부정관계를 합산한 교우관계 점수는 결과적으로 균형집단이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심 부분에서는 균형집단과 학업집단이 유사하게 높고,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이 유사하게 낮았다.

(6)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사용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와 스마트폰 사용목적²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항목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15>와 같고, 스마트폰 의존도 조사 문항은 <표 IV-16>과 같다.

표 IV-15 생활시간 유형별 스마트폰 사용 특성 기술통계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428(16.5%)	648(25.0%)	925(35.7%)	588(22.7%)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의존도 · 사용 목적	의존도	33.16(7.89)	28.04(6.94)	31.78(6.64)	29.52(7.27)	30.58(7.31)
	가족통화	0.91(0.28)	0.96(0.20)	0.94(0.24)	0.93(0.26)	0.94(0.25)
	가족문자	0.77(0.42)	0.91(0.28)	0.82(0.38)	0.85(0.35)	0.84(0.36)
	친구통화	0.90(0.30)	0.89(0.32)	0.90(0.29)	0.85(0.36)	0.89(0.32)
	친구문자	0.95(0.23)	0.93(0.25)	0.96(0.19)	0.94(0.24)	0.95(0.23)
	SNS	0.75(0.44)	0.61(0.49)	0.72(0.45)	0.62(0.49)	0.68(0.47)
	게임	0.78(0.42)	0.74(0.44)	0.78(0.42)	0.59(0.49)	0.73(0.45)
	사진/동영상 촬영	0.69(0.46)	0.71(0.46)	0.68(0.47)	0.70(0.46)	0.69(0.46)
	영상시청	0.92(0.27)	0.86(0.35)	0.90(0.30)	0.82(0.38)	0.88(0.33)
	음악듣기	0.90(0.30)	0.89(0.31)	0.87(0.33)	0.90(0.31)	0.89(0.32)
	정보검색	0.64(0.48)	0.81(0.40)	0.69(0.46)	0.77(0.42)	0.73(0.45)
	문서보기	0.60(0.49)	0.60(0.49)	0.64(0.48)	0.61(0.49)	0.62(0.49)

※ 집단 내 청소년 90%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 음영표시 함

21) 사용함 '1', 사용하지 않음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함

표 IV-16 스마트폰 의존도 조사 문항

일상생활 장애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2)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역)
가상세계 지향성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7)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금단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9)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역)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1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역)

스마트폰 의존도 평균은 30.58로 15개 문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편’으로 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존도는 균형집단이 28.04로 가장 낮았고, 유희집단이 3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목적별 빈도를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사용 목적은 친구와의 문자와 가족과의 통화로 각각 응답자의 95%와 94%가 가끔 또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사용 목적은 ‘문서보기’로 62%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유형별로 보면 모든 집단에서 가족과의 통화와 친구와의 문자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균형집단의 가족통화 사용률이 가장 높고, 친구문자 사용률은 가장 낮았다. 이 두 가지 사용 목적을

제외하고 유희집단은 친구통화, 영상시청, 음악듣기의 사용률이 90% 이상이었고, 균형집단은 가족과의 문자, 무기력집단은 친구와의 통화와 영상시청, 학업집단은 음악듣기의 사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균형집단은 가족과의 연락과 게임, 정보 검색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학업집단은 정보검색, 유희집단은 SNS와 게임, 영상시청, 무기력집단은 친구와의 연락 및 SNS, 게임, 영상시청을 위한 사용률이 높았다.

표 IV-17 생활시간 유형별 스마트폰 사용 특성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구분		ANOVA		사후비교(Scheffe)
		F	p-value	
의존도 · 사용 목적	의존도	58.720	0.000	유희 > 무기력 > 학업 > 균형
	가족통화	3.105	0.026	균형 > 유희
	가족문자	14.873	0.000	균형 > 학업 > 유희, 균형 > 무기력
	친구통화	3.553	0.014	무기력 > 학업
	친구문자	2.285	0.077	-
	SNS	11.908	0.000	유희=무기력 > 균형=학업
	게임	23.334	0.000	유희=균형=무기력 > 학업
	사진/동영상 촬영	0.427	0.733	-
	영상시청	9.565	0.000	유희 > 균형=학업, 무기력 > 학업
	음악듣기	1.013	0.386	-
	정보검색	16.238	0.000	균형=학업 > 유희=무기력
	문서보기	1.458	0.224	-

(7) 경제적 배경

가정의 경제적 배경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가구 월 소득²²⁾과 경제수준²³⁾에 대한 주관적 평가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문항들은 보호자 대상 설문에 포함된 것이다. 각 항목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생활시간 유형별 경제적 배경 기술통계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428(16.5%)	648(25.0%)	925(35.7%)	588(22.7%)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가정 배경	월 소득	5.98(2.28)	6.98(2.32)	6.33(2.15)	7.45(2.20)	6.69(2.29)
	경제수준	2.83(0.58)	3.02(0.54)	2.91(0.52)	3.06(0.49)	2.96(0.54)

‘월 소득’은 전체 평균 6.69점으로 대체로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학업집단의 소득이 가장 많고, 다음은 균형집단, 무기력집단, 유희집단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는 2.96으로 대체로 보통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도 월 소득과 마찬가지로 학업집단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균형집단, 무기력집단, 유희집단 순이었다.

22) ① 소득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⑫ 1,000만원 이상’ 척도로 조사함

23) ① ‘최하, ② 하, ③ 보통, ④ 상, ⑤ 최상’ 척도로 조사함

표 IV-19 생활시간 유형별 경제적 배경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구분		ANOVA		사후비교(Scheffe)
		F	p-value	
가정 배경	월 소득	48.661	0.000	학업 > 균형 > 무기력=유희
	경제수준	21.289	0.000	학업=균형 > 무기력=유희

경제적 배경 영역의 모든 항목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 소득의 경우 학업집단의 소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균형집단이 높았으며,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은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학업집단과 균형집단이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무기력 집단과 유희집단은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평가했다.

2. 유형 결정요인 분석 결과

1) 집단별 부모특성 차이 분석

각 집단별 부모변인의 기술통계값이 <표 IV-20>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 및 모의 학력은 학업집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균형, 무기력, 유희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집단의 경우 모 학력수준은 가장 높았으나 모의 취업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측면에서 유희집단의 경우 아침식사비율이 가장 낮았고, 양육태도 중 강요나 비밀관성 등 역기능적 태도특성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파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의 순기능적 양육 특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표 IV-20 생활시간 유형별 부모 변인 기술통계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428(16.5%)	648(25.0%)	925(35.7%)	588(22.7%)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배경	월 소득	5.98(2.28)	6.98(2.32)	6.33(2.15)	7.45(2.20)	6.69(2.29)
	모취업	0.79(0.40)	0.71(0.45)	0.75(0.43)	0.67(0.47)	0.73(0.44)
	모학력	13.28(2.26)	14.40(2.32)	13.61(2.27)	14.60(2.14)	13.98(2.31)
부모 특성	행복감	6.08(0.94)	6.29(0.82)	6.19(0.86)	6.22(0.85)	6.20(0.87)
	자존감	29.86(4.23)	30.60(4.11)	29.83(3.82)	30.25(3.76)	30.12(3.96)
	그릿	22.37(3.19)	22.49(3.17)	22.10(2.97)	22.25(2.96)	22.28(3.06)
	건강	2.85(0.60)	2.89(0.54)	2.85(0.53)	2.86(0.54)	2.86(0.55)

		유희(집단1)	균형(집단2)	무기력(집단3)	학업(집단4)	전체
구분		428(16.5%)	648(25.0%)	925(35.7%)	588(22.7%)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양육 태도	아침식사	4.17(2.44)	5.52(2.03)	4.96(2.28)	5.42(2.04)	5.07(2.24)
	따스함	12.83(2.62)	13.96(2.18)	13.25(2.28)	13.60(2.33)	13.44(2.36)
	거부	7.40(2.47)	6.66(2.49)	7.34(2.45)	6.84(2.49)	7.07(2.49)
	자율지지	13.03(2.50)	13.87(2.17)	13.20(2.26)	13.41(2.38)	13.39(2.32)
	강요	8.93(2.67)	8.39(2.54)	8.86(2.63)	8.69(2.58)	8.72(2.61)
	구조제공	11.80(2.42)	12.72(2.07)	12.09(2.02)	12.28(2.21)	12.24(2.17)
	비일관성	8.71(2.65)	7.67(2.51)	8.49(2.46)	7.88(2.54)	8.18(2.56)
학업	기대학력	1.89(0.58)	2.13(0.54)	2.01(0.52)	2.27(0.55)	2.08(0.56)
	성취만족	3.09(0.96)	3.58(0.90)	3.28(0.84)	3.69(0.94)	3.42(0.92)
	학교생활	3.26(1.02)	3.56(11.00)	3.39(0.93)	3.49(1.05)	3.43(1.00)

보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는 <표 IV-21>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그릇과 건강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및 전체적인 시간활용 수준에서 학업집단과 균형집단이 유사성을 보이고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과는 차별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분석으로 집단대비계수를 활용하여 두 집단씩을 통합하여 학업 및 균형집단과 무기력 및 유희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 보다 미시적으로는 유사한 집단들 간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학업집단과 균형집단,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1) 학업, 균형집단 vs. 유희, 무기력집단

학업집단과 균형집단은 대체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나은 상황이었고, 특히 모의 취업비율이 유희 및 무기력집단에 비해 낮았다. 미국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offerth & Sandberg (2001)의 연구에서 취업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결과로 수면 및 식사, TV시청을 포함한 기타 모든 활동 시간이 전업주부 가정보다 더 작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는 유희 및 무기력집단과 비교하여 균형, 학업집단의 취업모 비율이 더 낮았다. 즉, 전업모가 방과후 자녀를 직접 돌보기보다는 학원, 독서, 운동 등 적극적인 시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모의 행복감이나 자존감도 학업 및 균형집단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보다 바람직한 행동패턴을 보인다는 인식이 부모의 심리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부모의 건강한 심리상태가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패턴에 영향을 주는 등 상호적 인과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육특성과 관련하여서는 학업 및 균형집단의 아침식사 빈도가 더 높고, 파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 긍정적 양육태도의 정도가 높았으며, 거부, 강요, 비밀관성 등 부정적 양육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유희 및 무기력집단에 비해 높았다.

(2) 균형집단 vs. 학업집단

균형집단과 학업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배경특성과 관련해서는 학업집단의 월소득이 균형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업에 대한 기대나 만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육태도에서는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 순기능적 특성에서 균형집단의 부모가 더 높았고, 강요의 경우 학업집단의 부모가 높았다. 또한 균형집단 부모는 학업집단 부모에 비해 자녀의 학력수준에 대해 기대가 높지 않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집단의 부모들은 보다 높은 경제적 수준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의 달성을 위해 좀 더 지시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유희집단 vs. 무기력집단

정책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두 집단, 즉 유희집단과 무기력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배경특성에서 무기력집단의 월 소득 및 어머니 학력이 유희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심리특성과 관련해서는 유희집단 부모의 행복감이 무기력집단에 비해 낮았다.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유희집단의 아침식사 횟수가 더 적었고, 따스함과 구조제공 등 긍정적 양육태도의 수준도 유희집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수준 및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 또한 유희집단의 부모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희집단의 경우 가정배경이나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등이 휴대폰, 컴퓨터, TV 등에 대한 통제 없는 몰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무기력집단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희집단과 비교하여 보다 적절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 또한 더 나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시간활용에 있어서 효율성, 몰입, 자기주도성 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기력집단과 관련해서는 개인특성이나 학교특성 등 보다 광범위한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1 생활시간 유형별 부모 변인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비교

		ANOVA		사후비교		
		F	p-value	유학,무기력 vs. 균형,학업	균형 vs. 학업	유학 vs. 무기력
배경	월 소득	48.712	0.000	-	-	-
	모취업	7.066	0.000	+	0	0
	모학력	44.505	0.000	-	0	-
부모 특성	행복감	5.461	0.001	-	0	-
	자존감	5.802	0.001	-	0	0
	그릿	2.183	0.088	0	0	0
	건강	0.701	0.552	0	0	0
양육태도	아침식사	38.776	0.000	-	0	-
	따스함	23.461	0.000	-	+	-
	거부	14.071	0.000	+	0	0
	자율지지	14.816	0.000	-	+	0
	강요	5.403	0.001	+	-	0
	구조제공	18.232	0.000	-	+	-
	비일관성	22.397	0.000	+	0	0
학업	기대학력	47.317	0.000	-	-	-
	성취만족	49.720	0.000	-	0	-
	학교생활	8.803	0.000	-	+	0

※ ‘-’는 연구집단(표의 왼쪽)이 비교집단(표의 아랫줄)보다 낮음, ‘+’는 높음, ‘0’은 차이 없음을 의미함

2) 집단 변별요인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앞서 부모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모변인 및 배경변인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집단 변별에 대한 각 변인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할 경우, 즉 다른 변인의 값이 동일할 경우 집단변별에 있어 해당 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변인들 중 부모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변별의 영향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균형집단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집단이 균형집단과 어떤 특성에서 변별되는지, 그리고 무기력집단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집단이 어떻게 변별되는지를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균형집단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는 <표 IV-22>에 제시되었다. 우선, 균형집단과 유희집단을 결정하는 배경요인은 월 소득, 모취업, 모학력으로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모 가정일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유희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부모의 심리특성은 균형집단과 유희집단을 변별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횟수가 적고 구조제공 수준이 낮으며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유희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자녀의 학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균형집단 대비 유희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균형집단 대비 무기력집단 변별요인을 살펴보면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무기력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모의 취업여부는 균형집단과 무기력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부모의 심리특성은 균형집단과 무기력집단을 변별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침식사 횟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무기력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앞서 균형-유희집단

과는 달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은 균형집단과 무기력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업집단과 균형집단을 구분하는 배경요인은 월 소득과 모 취업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미취업일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학업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모의 학력수준은 두 집단들 변별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심리특성은 균형집단과 학업집단을 변별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측면에서 학업집단과 균형집단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요인은 없었다. 단, 구조제공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집단이 아닌 균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p=0.052$). 또한 기대학력이 높을수록 균형집단 대비 학업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표 IV-22 집단 변별 요인 다분로지스틱 분석결과 (기준: 균형집단)

		유희			무기력			학업		
		b	p	exp(b)	b	p	exp(b)	b	p	exp(b)
배경	월 소득	-0.214	0.008	0.807	-0.188	0.002	0.828	0.188	0.004	1.206
	모취업	0.381	0.020	1.463	0.194	0.117	1.214	-0.258	0.048	0.773
	모학력	-0.312	0.000	0.732	-0.229	0.000	0.795	0.020	0.771	1.021
부모 특성	행복감	-0.117	0.156	0.890	-0.001	0.987	0.999	-0.071	0.313	0.931
	자존감	0.074	0.424	1.077	0.010	0.891	1.010	-0.063	0.430	0.939
	그릿	-0.001	0.988	0.999	-0.069	0.278	0.933	-0.043	0.535	0.958
	건강	0.041	0.564	1.042	0.015	0.800	1.015	-0.029	0.647	0.972
양육 특성 및 태도	아침식사	-0.192	0.000	0.825	-0.075	0.004	0.927	-0.023	0.435	0.977
	따스함	-0.189	0.071	0.828	-0.095	0.265	0.909	-0.076	0.413	0.927
	거부	0.048	0.576	1.050	0.115	0.090	1.122	-0.037	0.629	0.964
	자율지지	0.082	0.441	1.086	-0.016	0.857	0.985	-0.107	0.252	0.898
	강요	-0.075	0.389	0.928	-0.081	0.242	0.922	0.056	0.458	1.058
	구조제공	-0.176	0.038	0.839	-0.110	0.103	0.896	-0.141	0.052	0.868
	비일관성	0.268	0.003	1.307	0.191	0.008	1.211	-0.083	0.295	0.921
기대학력		-0.364	0.007	0.695	-0.126	0.251	0.882	0.469	0.000	1.598
상수		0.872	0.012		0.884	0.002		-0.825	0.010	

무기력집단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는 <표 IV-23>에 제시되었다.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보면, 배경요인과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서 구분 요인은 없었다. 양육특성 및 태도 측면에서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아침식사 빈도로, 아침식사 빈도가 낮을수록 무기력 대비 유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긴 무기력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기대학력의 경우 유희집단에 비해 무기력집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p=.053$).

무기력집단과 학업집단을 구분하는 배경요인은 월 소득, 모취업여부 및 모학력으로 소득 및 모학력이 높고 미취업모 가정일수록 학업집단 소속확률이 높아졌다.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두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었다. 학업집단은 무기력집단에 비해 거부적 양육태도 및 비밀관성의 수준이 낮았고, 아침식사의 빈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p=0.052$), 강요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더 높은 경향도 보였다($p=0.060$). 기대학력이 높을수록 무기력집단 대비 학업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표 Ⅶ-23 집단 변별 요인 다분로지스틱 분석결과 (기준: 무기력집단)

		유학			균형			학업		
		b	p	exp(b)	b	p	exp(b)	b	p	exp(b)
배경	월 소득	-0.025	0.737	0.975	0.188	0.002	1.207	0.376	0.000	1.457
	모취업	0.187	0.222	1.205	-0.194	0.117	0.824	-0.451	0.000	0.637
	모학력	-0.083	0.243	0.921	0.229	0.000	1.258	0.250	0.000	1.284
부모 특성	행복감	-0.116	0.127	0.891	0.001	0.987	1.001	-0.070	0.300	0.932
	자존감	0.064	0.453	1.066	-0.010	0.891	0.990	-0.073	0.338	0.930
	그릿	0.068	0.360	1.070	0.069	0.278	1.072	0.026	0.691	1.027
	건강	0.027	0.682	1.027	-0.015	0.800	0.986	-0.043	0.468	0.958
양육 특성 및 태 도	아침식사	-0.117	0.000	0.890	0.075	0.004	1.078	0.052	0.052	1.054
	따스함	-0.094	0.318	0.910	0.095	0.265	1.100	0.019	0.825	1.019
	거부	-0.066	0.401	0.936	-0.115	0.090	0.892	-0.151	0.035	0.860
	자율지지	0.098	0.307	1.103	0.016	0.857	1.016	-0.092	0.294	0.912
	강요	0.006	0.942	1.006	0.081	0.242	1.084	0.137	0.060	1.147
	구조제공	-0.065	0.400	0.937	0.110	0.103	1.117	-0.031	0.653	0.969
	비밀관성	0.076	0.356	1.079	-0.191	0.008	0.826	-0.274	0.000	0.760
	기대학력	-0.238	0.053	0.788	0.126	0.251	1.134	0.594	0.000	1.812
상수		-0.012	0.970		-0.884	0.002		-1.709	0.000	

3. 세대 간 비교 분석 결과

1) 2018년과 2010년의 생활시간 유형 분류

2010년과 2018년의 중학교 1학년 평일의 생활시간 활용 형태 비교를 위하여, KCYPS 2018 생활시간 문항 중 KCYPS 2010과 동일한 문항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KCYPS 2010 중학교 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별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4 2010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별 기술통계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학업(집단3)	전체
	551(23.4%)	1,244(52.9%)	556(23.6%)	2,351(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수면	4.36(1.13)	4.20(0.86)	3.93(1.10)	4.17(1.00)
학원	2.00(1.78)	4.32(1.70)	5.02(1.70)	3.94(2.04)
공부	2.87(1.33)	4.73(1.21)	5.40(1.38)	4.45(1.58)
독서	2.00(1.19)	2.30(0.99)	2.39(1.07)	2.25(1.07)
컴퓨터	3.85(1.51)	3.06(1.02)	1.66(0.91)	2.92(1.37)
TV	4.30(1.56)	3.57(1.07)	2.29(1.13)	3.44(1.41)
친구	2.88(1.67)	2.33(1.13)	1.31(0.69)	2.22(1.32)

분석결과, 2010년 중학교 1학년 2,351명 중 시간활용 양상이 다른 3개의 하위 집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집단의 이름을 부여하였으며, 각각 유희와 균형, 학업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명은 타 집단의 양상과 비교하여

명칭을 부여한 것이므로 상대비교에 의한 명칭 구분임을 유의해야한다.

2010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수면’ 평균은 4.17로 수면시간은 대체로 7시간~8시간 정도 자는 청소년이 가장 많고, 7시간 미만보다는 8시간 이상 자는 청소년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경우는 3.94로 1시간~2시간 정도로 보이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공부’는 4.45로 2시간 내외 정도이지만 ‘학원’ 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하루 ‘독서’는 2.25로 30분 정도 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2.92로 이보다 긴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여가활동 중 가장 긴 시간을 사용하는 항목은 ‘TV’인데, 3.44로 약 1시간 내외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친구’와 노는 시간은 여가 활동 중 가장 짧았는데 2.22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생활시간 조사 문항은 범주형 척도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평균값으로 대략적 시간을 추정하여 서술하였으나, 실제 응답 값인 범주별 빈도는 [부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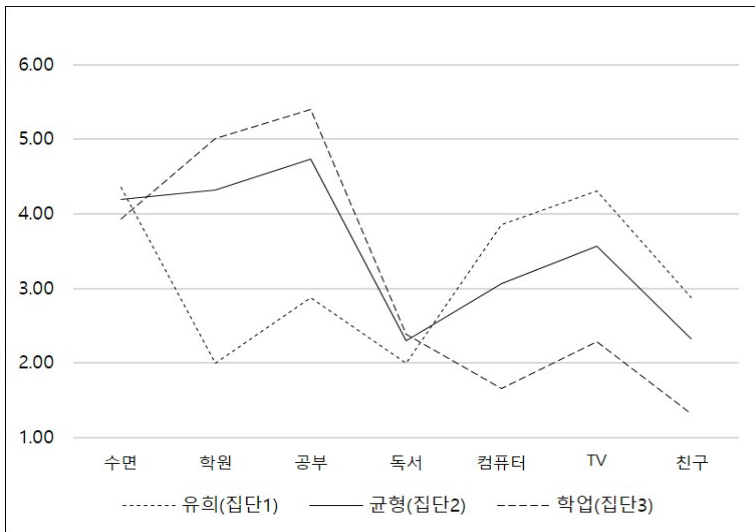


그림 IV-2 2010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 유희집단(집단1)은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길고 학원과 공부, 독서 시간이 가장 적은 반면 컴퓨터와 TV를 이용하는 시간과 친구와 노는 시간이 길다. 학업집단(집단3)은 유희집단과는 반대되는 유형이다.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짧고 학원, 공부 시간이 긴 반면, 컴퓨터와 TV를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친구와 노는 시간은 짧다. 균형집단(집단2)은 모든 항목에서 유희집단과 학업집단의 중간 정도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KCYPS 2010년과 비교 가능한 문항을 선별한 KCYPS 2018 중학교 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별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5 2018년 중학교1학년 생활시간 유형별 기술통계(2010 비교)

구분	유희(집단1)	균형(집단2)	학업(집단3)	전체
	478(18.5%)	1,405(54.3%)	706(27.3%)	2,589(100%)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수면	4.18(1.14)	4.49(0.83)	3.98(1.03)	4.29(0.98)
학원	2.90(2.06)	4.35(1.47)	5.23(1.73)	4.32(1.83)
공부	1.93(1.05)	3.23(0.76)	5.31(0.99)	3.56(1.47)
독서	1.81(1.26)	2.27(0.98)	3.21(1.46)	2.44(1.29)
컴퓨터	3.10(2.14)	2.18(1.38)	2.01(1.45)	2.31(1.61)
TV	3.08(1.87)	2.62(1.19)	2.53(1.51)	2.68(1.44)
친구	4.29(2.06)	3.18(1.55)	3.22(1.85)	3.40(1.79)

분석결과, 2018년 중학교 1학년 2,589명 중에도 2010년과 마찬가지로 시간활용 양상이 다른 3개의 하위 집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집단의 이름을 부여하였으며, 2010년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집단 이름을 활용하였

다. 따라서 집단1에는 유희, 집단2에는 균형, 집단3에는 학업으로 집단 이름을 명명하였다.

2018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수면’ 평균은 4.29로 수면시간은 대체로 7시간~8시간 정도 자는 청소년이 많고, 7시간 미만보다는 8시간 이상 자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경우는 4.32로 1시간 약간 넘는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공부’는 3.56으로 ‘학원’ 보다 적은 1시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독서’는 2.44로 30분 정도 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2.31로 약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지만 ‘독서’보다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TV’는 2.68로 30분을 약간 넘는 정도이고, 컴퓨터와 독서보다는 긴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가활동 중 가장 긴 시간을 사용하는 항목은 ‘친구’와 노는 시간인데 3.40으로 1시간 내외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생활시간 조사 문항은 범주형 척도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평균값으로 대략적 시간을 추정하여 서술하였으나, 실제 응답 값인 범주별 빈도는 [부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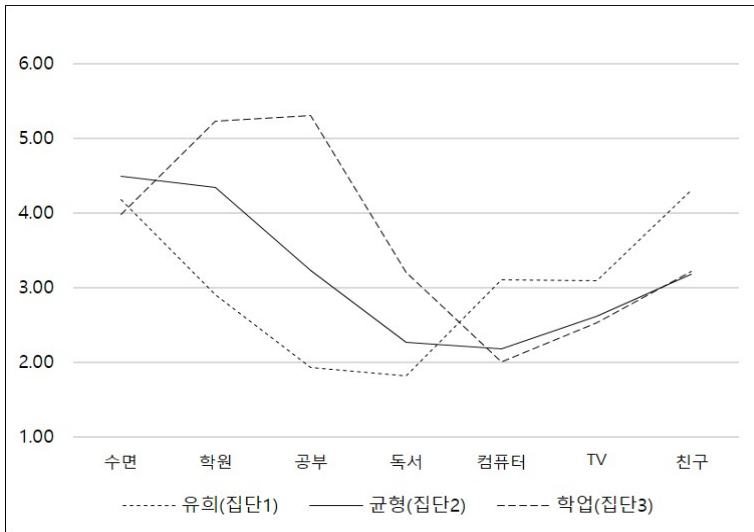


그림 IV-3 2018년 중학교1학년의 생활시간 유형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 유희집단(집단1)은 상대적으로 학원과 공부, 독서 시간이 적은 반면 컴퓨터와 TV를 이용하는 시간과 친구와 노는 시간이 길다. 학업집단(집단3)은 유희집단과는 반대되는 유형이다.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짧고 학원, 공부, 독서 시간이 긴 반면, 컴퓨터와 TV를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친구와 노는 시간은 유희집단에 비하여 짧다. 균형집단(집단2)은 수면시간이 다소 길고 학원, 공부, 독서 항목에서 유희집단과 학업집단의 중간 정도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시간 항목은 학업집단과 유사한 시간사용 정도를 보이고 있다.

2) 2018년과 2010년의 생활시간 유형 비교

2010년과 비교하여 2018년 중학교 1학년의 평일 생활시간 활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해의 유사한 유형끼리 분류하여 시간 활용 양상을 대략적으로 비교하였다.

(1) 유희집단

학습 관련 항목은 2010년에 비하여 학원 시간은 증가하고, 스스로 공부시간은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여가 관련 항목에서는 컴퓨터 사용과 TV 시청이 크게 줄었는데, 휴대폰 사용의 증가를 한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친구와 노는 시간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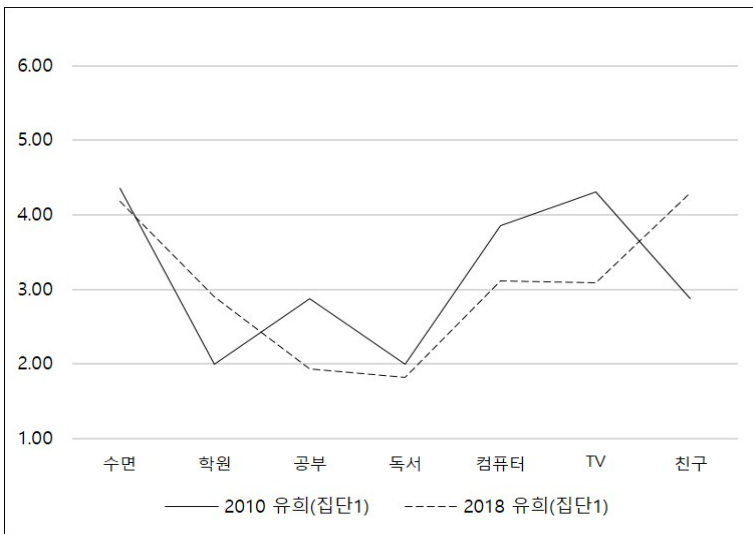


그림 IV-4 2010년과 2018년 유희집단(집단1)의 생활시간

(2) 균형집단

학습 관련 항목은 2010년에 비하여 학원 시간은 변화가 없었으나, 스스로 공부 시간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 관련 항목에서는 컴퓨터 사용과 TV 시청이 크게 줄었는데, 유흥집단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사용의 증가를 한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친구와 노는 시간의 경우 크게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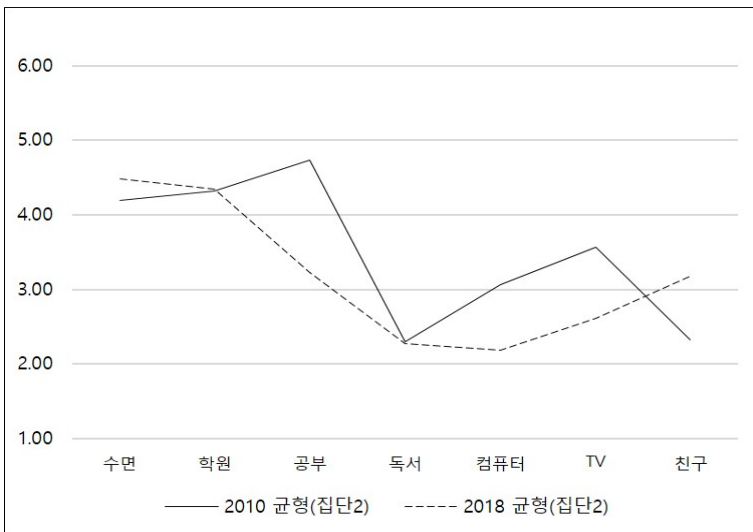


그림 IV-5 2010년과 2018년 균형집단(집단2)의 생활시간

(3) 학업집단

학습 관련 항목은 2010년에 비하여 학원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스스로 공부시간은 유사하였다. 다른 집단과 달리 학업집단에서는 독서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여가 관련 항목에서도 컴퓨터 사용과 TV 시청이 다소간 증가하였으며, 친구와 노는 시간의 경우는 시간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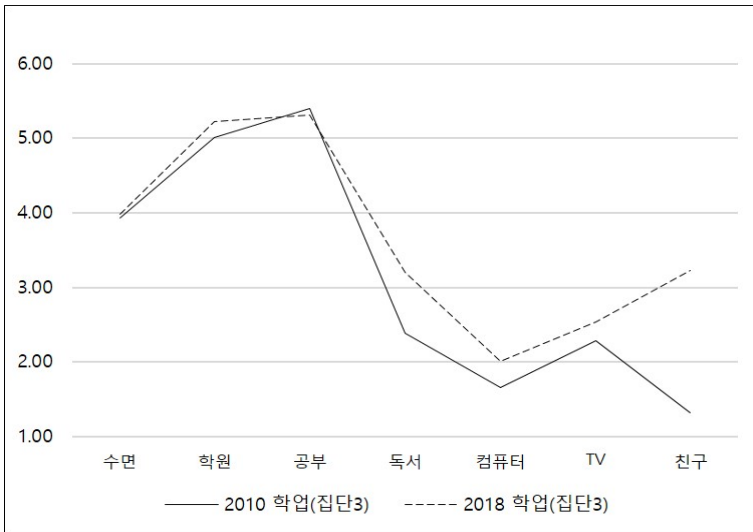


그림 IV-6 2010년과 2018년 학업집단(집단3)의 생활시간

(4) 종합

2010년과 비교한 2018년의 생활시간 항목별 시간의 증감 경향은 유형별로 상이하였다. 친구와 노는 시간은 모든 유형에서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외의 항목들은 집단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학습 관련 항목에서 학원 시간의 경우 유희집단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다른 집단은 유사하였으며, 스스로 학습 시간은 학업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여가시간 항목에서는 유희와 균형집단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학업집단과는 대조적이었다. 먼저 독서 시간은 학업집단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른 집단에서는 유사하였고, 컴퓨터 사용 시간과 TV시청 시간의 경우 유희집단과 균형집단은 감소한 반면 학업집단은 소폭 증가하였다.

3) 2018년과 2010년의 생활시간 항목 비교

2010년과 비교하여 2018년 중학교 1학년의 평일 생활시간 활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형 간 비교에서 특징적인 차이가 있었던 시간 항목을 중심으로 시간 활용 양상을 대략적으로 비교하였다.

(1) 학습시간

유형별 비교를 통하여 유희집단에서 학원 시간이 증가하고 유희집단과 균형집단에서 스스로 공부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희집단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 반면 학원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집단의 경우 학원 시간과 스스로 공부 시간이 모두 2010년과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유형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0년 당시에도 학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두 유형은 2018년에도 할애하는 시간이 유사하고, 학원 시간이 짧았던 유희집단에서 그 시간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서 학원 시간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즉 2010년 학원 시간 평균 3.94에서 2018년 4.32로 사교육 시간 평균의 증가로 이어졌다.

사교육 시간 변화 원인을 해석해볼 수 있는 자료로 방과 후 교육을 받는 이유와 받지 않는 이유의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IV-26>, <표 IV-27>과 같다. 사교육을 받는 1순위 이유의 경우 사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주 양육자가 응답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체 2,351명 중 2,016(85.8%)명이 응답하였고, 2018년에는 전체 2,589명 중 2,218(85.7%)명이 응답하였다.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과 주 양육자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였고 2010년에는 333(14.2%)명, 2018년에는 371(14.3%)명이 답하였다.

표 IV-26 2010년과 2018년의 사교육을 받는 1순위 이유

	유형(집단1)		균형(집단2)		학업(집단3)		전체	
	2010	2018	2010	2018	2010	2018	2010	2018
상급 학교 진학	63 (19.6%)	20 (6.4%)	218 (18.8%)	130 (10.3%)	111 (20.8%)	119 (18.4%)	392 (19.4%)	268 (12.1%)
대부분 받고 있어서	11 (3.4%)	17 (5.4%)	36 (3.1%)	40 (3.2%)	18 (3.4%)	17 (2.6%)	65 (3.2%)	74 (3.3%)
선행 학습	13 (4.0%)	21 (6.7%)	79 (6.8%)	145 (11.5%)	49 (9.2%)	97 (14.1%)	141 (7.0%)	257 (11.6%)
학교 수업 보충	76 (23.6%)	102 (32.5%)	213 (18.3%)	377 (29.9%)	73 (13.7%)	122 (18.9%)	362 (18.0%)	601 (27.1%)
학교 성적 향상	131 (40.7%)	106 (33.8%)	576 (49.6%)	461 (36.6%)	261 (49.0%)	240 (37.2%)	968 (48.0%)	807 (36.4%)
취미 자기 개발	27 (8.4%)	41 (13.1%)	37 (3.2%)	87 (6.9%)	20 (3.8%)	50 (7.8%)	84 (4.2%)	178 (8.0%)
학교 후 돌봄	-	6 (1.9%)	-	13 (1.0%)	-	3 (0.5%)	-	22 (1.0%)
기타	1 (0.3%)	1 (0.3%)	2 (0.2%)	6 (0.5%)	1 (0.2%)	3 (0.5%)	4 (0.2%)	10 (0.5%)
전체	322 (100.0%)	301 (100.0%)	1,161 (100.0%)	1,089 (100.0%)	533 (100.0%)	509 (100.0%)	2,016 (100.0%)	1,218 (100.0%)

※ 유형별로 응답비율이 10% 이상인 이유는 굵게 표시함

표 IV-27 2010년과 2018년의 사교육을 받지 않는 1순위 이유

	유희(집단1)		균형(집단2)		학업(집단3)		전체	
	2010	2018	2010	2018	2010	2018	2010	2018
학교 수업 충분	18 (7.9%)	26 (15.9%)	6 (7.2%)	30 (20.5%)	-	9 (14.8%)	24 (7.2%)	65 (17.5%)
스스로 공부 습관	51 (22.5%)	28 (17.1%)	19 (22.9%)	38 (26.0%)	15 (65.2%)	15 (24.6%)	85 (25.5%)	81 (21.8%)
경제 형편	76 (33.5%)	30 (18.3%)	33 (39.8%)	20 (13.7%)	5 (21.7%)	14 (23.0%)	114 (34.2%)	64 (17.3%)
마땅한 곳이 없음	7 (3.1%)	6 (3.7%)	1 (1.2%)	3 (2.1%)	-	2 (3.3%)	8 (2.4%)	11 (3.0%)
효과 없음	18 (7.9%)	7 (4.3%)	6 (7.2%)	3 (2.1%)	1 (4.3%)	1 (1.6%)	25 (7.5%)	11 (3.0%)
시간 부족	9 (4.0%)	2 (1.2%)	5 (6.0%)	1 (0.7%)	-	1 (1.6%)	14 (4.2%)	4 (1.1%)
자녀 원하지 않음	42 (18.5%)	63 (38.4%)	12 (14.5%)	46 (31.5%)	2 (8.7%)	15 (24.6%)	56 (16.8%)	124 (33.4%)
기타	6 (2.6%)	2 (1.2%)	1 (1.2%)	5 (3.4%)	-	4 (6.6%)	7 (2.1%)	11 (3.0%)
전체	227 (100.0%)	164 (100.0%)	83 (100.0%)	146 (100.0%)	23 (100.0%)	61 (100.0%)	333 (100.0%)	371 (100.0%)

※ 유형별로 응답비율이 20% 이상인 이유는 굵게 표시함

사교육을 받는 1순위 이유 중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10년과 2018년 모두 ‘학교 성적 향상’이었다. 이는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모든 유형에서 가장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생활시간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2010년에 비해 학원 시간이 증가한 유희집단의 경우 2010년에 응답비율이 10% 이상이었던 이유는 ‘학교 성적 향상’을 포함하여 ‘학교 수업 보충’, ‘상급학교 진학’ 순이었다. 2018년에도 1순위, 2순위 이유는 동일했지만, 3순위 이유는 ‘상급학교 진학’이 아닌 ‘취미 및 자기개발’로 변화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희집단 청소년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가 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습위주의 것에서 보다 다양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 변화가 학원 시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균형집단과 학업집단은 2010년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들이 2018년에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단, 2018년에는 선행학습을 위한 목적이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1순위 이유 중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10년에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었던데 반해, 2018년에는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는 전 유형에서 세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이유였으나, 2018년에는 전 유형에서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이유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사교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인식변화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수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늘었다는 것이다. 유희집단과 균형집단은 7%에 그쳤던 것이 2~3배가량 증가하였고, 학업집단에서는 0%였던 응답비율이 14.8%로 증가하였다.

‘스스로 공부 습관을 기르기 위해’는 균형집단과 학업집단에서 여전히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이유였으나 학업집단에서 응답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학업집단에서는 여전히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지만 유희집단과 균형집단에서는 큰 폭으로 낮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즉, 2010년에는 사교

육을 받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형편과 스스로 공부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양분되었다면, 2018년에는 자녀가 원하기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수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 여가시간

독서와 컴퓨터 이용시간, TV 시청시간의 변화 양상은 유희집단과 균형집단이 유사하였고 학업집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독서 시간의 경우 유희집단과 균형집단은 2010년과 2018년의 할애하는 시간이 비슷하였지만, 학업집단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독서 자체의 중요도가 향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취도 향상 및 상급학교 진학에 독서가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컴퓨터 이용시간과 TV 시청시간의 경우 유희집단과 균형집단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 이용 시간 증가가 TV와 컴퓨터 이용시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수행한 아동행복 생활지수 조사(2019)에 따르면 학업 외 목적으로 2018년 중학생이 평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 48분이었고, 컴퓨터 이용 시간과 TV 시청시간은 절반 정도 수준인 53분과 50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과 2018년의 휴대전화 소지 비율을 비교한 <표 IV-28>을 보면 2018년 전체 휴대전화 소지 비율은 95.8%로 2010년에 비해 4%p 증가하였고, 2007년~2009년 사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의 출시와 보급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이 소지한 휴대전화 가운데 스마트폰의 비율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TV시청 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 감소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다.

표 IV-28 2010년과 2018년의 휴대전화 소지율

구분	유희(집단1)		증감	균형(집단2)		증감
	2010	2018		2010	2018	
소유(%)	494 (89.7%)	467 (97.7%)	+8.0%p	1,155 (92.8%)	1,356 (96.5%)	+3.7%p
구분	학업(집단3)		증감	전체		증감
	2010	2018		2010	2018	
소유(%)	510 (91.7%)	657 (93.1%)	+1.4%p	2,159 (91.8%)	2,480 (95.8%)	+4.0%p

그러나 학업집단에서는 컴퓨터 이용시간과 TV 시청시간이 오히려 소폭 증가하여,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컴퓨터 및 TV 시청시간 증감 간에는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을 보면 유희집단의 휴대전화 소지 비율이 8%p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4%p 증가하는 동안 학업집단에서는 1.4%p 증가에 그쳐, 학업집단에서는 학업 및 기타 목적 등으로 휴대전화 소지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론해볼 수 있다.

(3) 친구와 노는 시간

2010년에 비하여 2018년에 가장 두드러지게 시간 사용이 변한 항목은 친구와 노는 시간이었는데, 세 집단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친구와 노는 시간은 여가시간 중 2010년에는 세 집단 모두에서 가장 적은 시간 사용 항목에 가까웠는데, 2018년에는 가장 많은 시간 사용 항목이 되었다. 시간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 변화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의 포래관계 조사 결과와 2018년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표 IV-29>과 같다.

표 IV-29 2010년과 2018년의 포래관계 조사 결과

		유희(집단1)		균형(집단2)		학업(집단3)		전체	
		2010	2018	2010	2018	2010	2018	2010	2018
평균		2.90	3.04	2.98	3.11	3.02	3.21	2.97	2.92
백분위수	25	2.67	2.77	2.67	2.85	2.67	2.91	2.67	2.85
	50	2.89	3.00	3.00	3.08	3.00	3.15	3.00	3.08
	75	3.22	3.31	3.22	3.38	3.39	3.54	3.22	3.38

KCYPS 2010과 KCYPS 2018의 포래관계 측정 문항은 <표 IV-30>에 제시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문항으로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포래관계 응답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백분위수를 통하여 응답 분포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전체 응답자의 하위 25%의 점수(백분위수 25), 50%의 점수인 중위수(백분위수 50) 그리고 상위 25%의 점수(백분위수 75)를 비교하여, 각 집단의 상대비교에 의한 점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분포의 편포 정도에 따라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평균 점수 비교보다 적절하다.

2010년의 포래관계 전체 평균은 2.97점이고, 2018년은 2.92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비교 지점인 백분위수 25, 50, 75의 값을 보면

모두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또래관계 점수 분포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 즉, 대체로 모든 응답 대상자의 점수가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평균 점수의 하락은 분포의 편포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대체로 점수가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0년의 왜도(Skewness)는 -0.424, 2018년은 -0.091로 분포의 모양이 정규분포에 가깝게 변화였다.

표 IV-30 2010년과 2018년의 또래관계 조사 문항

또래관계 문항(4점 척도)		
2010 (문 21)	의사 소통	1)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3)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뢰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5)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소외	7)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역)
		8)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역)
		9)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역)
2018 (문 23)	긍정 관계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부정 관계	9)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역)
		10)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역)
		11)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역)
		12)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역)
		1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역)

○———— 제5장 논 의

- 1. 결과 요약
- 2. 제언
- 3. 결론

하루 생활시간 활동의 합은 24시간이기 때문에 한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증가는 다른 활동시간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개별 생활 활동의 청소년 인지 혹은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는 다양한 활동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서와 TV시청 시간 간의 상대적 영향을 파악 및 비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개별 생활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청소년 생활시간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생활시간 유형은 단지 한 가지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유형은 한 가지 활동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면서 다른 활동에는 적은(혹은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특정한 생활패턴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는 분류된 유형별 심리·정서적, 신체적, 가정 배경적, 학업적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유형을 결정하는 부모 변인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2018년의 생활시간 유형 분석 결과를 비교 가능한 생활시간 항목을 기준으로 2010년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한 하루 생활을 위한 시사점 도출과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 제V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 김준엽 교수가 공동 작성하였음.

1. 결과 요약

1) 생활시간 유형 특성

KCYPS 2018 중학교1학년의 분석 결과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른 생활시간 유형에는 4개 집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 학습 보다는 여가/유희 시간을 길게 보내는 집단(유희집단) 16.5%,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을 고르게 많이 사용하는 집단(균형집단) 25.0%, 조사 항목 전반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학습관련 항목에 시간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무기력집단) 35.7%, 학습시간 중 학원에 있는 시간이 특히 길고, 여가시간이 적은 집단(학업집단) 22.7%이었다. 즉, 각각 여가, 학습 또는 여가와 학습 전반에 걸쳐 시간을 길게 쓰고 있는 청소년 64.3%와 그렇지 않은 청소년 35.7%로 나뉜 결과를 확인하였다.

유희집단. 집단별 생활시간 사용 형태를 보면 먼저 유희집단(집단1)은 여가시간 중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 TV시청 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 면에서는 아침식사 횟수가 가장 적고 BMI지수는 가장 높았으며, 심리 및 정서적 면에서 행복감, 만족도, 자존감은 낮고 우울 및 불안 수준은 높았다. 학업성취수준이 낮고 성취도에 대한 만족과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열의는 가장 낮은 반면 학업무기력 수준은 높았다. 또래관계를 보면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부정적 관계도 많았고 협동심 수준은 다소 낮았다.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은 가장 높았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 면에서는 월 소득 수준과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모두 낮은 편이었다.

균형집단. 균형집단(집단2)은 학습시간과 여가시간 양쪽에 모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학습시간 면에서 '학원'의 경우는 학업집단(집단4)보다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강의'와 '방과후학교', 스스로 학습을 의미하는 '공부' 시간은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중 '독서'와 '운동' 시간은 4개

집단 중 가장 길고, ‘휴대폰’ ‘컴퓨터’, ‘TV’, ‘친구’와 노는 시간 역시 4개 집단 중 2번째 정도로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수면은 긴 편이었고,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 면에서 아침식사 횟수가 많고 운동시간이 길며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심리 및 정서적 면에서는 행복감, 만족도, 자존감이 가장 높았고, 학업성취수준과 성취도에 대한 만족, 학교생활만족, 학업열의 등도 높았다. 교우관계에서도 긍정적 관계 정도와 협동심이 높았다.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이 가장 낮고 휴대전화 주 이용 목적은 가족과의 통화와 메시지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 면에서는 월 소득 수준과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높은 편이었다.

무기력집단. 무기력집단(집단3)은 조사항목 모두에 비교적 짧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비롯하여 학습시간 항목인 ‘학원’, ‘인터넷강의’, ‘방과후학교’, ‘공부’는 가장 적거나 두 번째로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가시간 중에서도 ‘독서’, ‘운동’, ‘TV’, ‘친구’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적거나 두 번째로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신체발달 면에서는 아침식사나 운동시간 등 대체로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존감이 다소 낮고, 우울 및 불안 수준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 및 성취도 만족, 학교생활만족과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등은 낮은 편이었으나 유희집단보다는 소폭 높았다. 또래 관계를 보면 의견충돌이 잦고 친밀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부정관계가 다소 높고 협동심은 낮았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두 번째로 높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 면에서는 월 소득 수준과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모두 낮은 편이었다.

학업집단. 학업집단(집단4)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 특히 길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두 번째로 길었다. 반면, 학습시간 중 ‘인터넷 강의’와 ‘방과후학교’에는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학습 방식으로 학원을 주로 이용하였다. ‘독서’를 제외한 모든 여가시간 항목에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특히 ‘친구’와 노는 시간은 평균과 1.4점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신체발달

면에서는 아침식사 횟수는 많지만 운동시간이 가장 적었고, 건강상태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심리정서 특성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균형집단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및 학업 특성을 보면 학업성취수준은 가장 높았지만 성취도에 대한 만족은 균형집단보다 낮아 두 번째로 높았고, 학교생활 만족은 무기력집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래관계, 협동심은 균형집단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았고, 휴대전화 의존도는 소폭 높았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 면에서는 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높은 편이었다.

2) 생활시간 유형 결정요인

생활시간 유형 결정요인으로서의 부모변인 탐색을 위하여 우선 집단 간 가정배경 및 부모 관련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 변인들을 중심으로 집단 구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먼저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학업집단과 균형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대체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나은 상황이었고, 특히 모의 취업비율이 유희 및 무기력집단에 비해 낮았게 나타났다. 양육특성과 관련하여서는 학업 및 균형집단의 아침식사 빈도가 더 높고,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 긍정적 양육태도의 정도가 높았으며, 거부, 강요, 비밀관성 등 부정적 양육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유희 및 무기력집단에 비해 높았다.

유사성이 높은 두 집단 간 비교 결과, 균형집단과 학업집단 간 특징적인 결과로는 두 집단이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 순기능적 특성에서 균형집단의 부모가 더 높았고, 강요의 경우 학업집단의 부모가 높았다. 무기력집단과 유희집단 간 비교에서는 배경특성 차이로 무기력집단의 월 소득 및 어머니 학력이 유희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특징적인 차이로 들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특성과 관련해서는 유희집단

부모의 행복감이 무기력집단에 비해 낮았다.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유희집단의 아침식사 횟수가 더 적었고, 파스함과 구조제공 등 긍정적 양육태도의 수준도 유희집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수준 및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 또한 유희집단의 부모가 더 낮았다.

집단 결정요인의 크기를 균형집단에 대비하여 추정한 결과 우선, 균형집단과 유희집단을 결정하는 배경요인은 월 소득, 모취업, 모학력으로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모 가정일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유희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아침식사 횟수가 적고 구조제공 수준이 낮으며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유희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자녀의 학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균형집단 대비 유희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균형집단 대비 무기력집단 변별요인을 살펴보면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무기력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모의 취업여부는 균형집단과 무기력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아침식사 횟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무기력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업집단과 균형집단을 구분하는 배경요인은 월 소득과 모 취업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미취업일수록 균형집단이 아닌 학업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기대학력이 높을수록 균형집단 대비 학업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3) 생활시간 유형의 세대 간 특성

2010년과 2018년의 중학교1학년 생활시간 유형을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두 해 모두 유희집단과 균형집단, 학업집단의 3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유희집단 23.4%, 균형집단 52.9%, 학업집단 23.6%로 나타났는데, 2018년에는 유희집단 18.5%, 균형집단 54.3%, 학업집단 27.3%로 유희집단이 소폭 감소하고 학업집단이 증가한 경향이 있었다.

집단 유형별로 보면 친구와 노는 시간은 모든 유형에서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외의 항목들은 집단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학습 관련 항목에서 학원 시간의 경우 유희집단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다른 집단은 유사하였으며, 스스로 학습 시간은 학업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여가시간 항목에서는 먼저 독서 시간은 학업집단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른 집단에서는 유사하였고, 컴퓨터 사용 시간과 TV시청 시간의 경우 유희집단과 균형집단은 감소한 반면 학업집단은 소폭 증가하였다.

이를 주요 변인별로 보면 학습시간 관련하여 대체로 학원 시간이 증가하고 스스로 공부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희집단의 학원 시간이 증가하고 2010년에도 학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학업집단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교육을 받거나 받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도 2010년과 차이를 보였는데, 2010년 유희집단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이유 1, 2, 3순위가 모두 학업 관련이었던데 비하여 2018년에는 세 번째 순위로 '취미 및 자기개발'을 꼽았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도 2010년에는 경제적 형편이 1순위 이유였는데, 2018년에는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로 나타났다.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학업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학원을 가게 되었으며, 학원 선택에도 자녀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존중되는 변화가 있었다.

여가시간 항목에서는 2010년과 2018년의 가장 큰 변화는 친구와 노는 시간의 대폭 증가이다. 모든 유형에서 친구와 노는 시간이 늘었고, 또래관계 조사 결과에서도 또래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서시간의 경우 학업집단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TV시청과 컴퓨터 이용 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감소하였다. 2010년과 2018년의 비교 문항으로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 없어 여가시간 항목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두 해의 휴대전화 보급률 등을 비교할 때, 2018년의 매체 이용시간 감소는 휴대전화 이용 시간에 의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1 생활시간 유형 분석 주요 결과 요약

2018 생활시간 유형특성	- 유취집단(16.5%) - 컴퓨터, TV, 친구와 노는 시간이 가장 길었음 - 아침식사 횟수 가장 적고 BMI는 가장 높음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가장 부정적 - 휴대전화 의존도 가장 높음	- 균형집단(25.0%) - 학습시간, 여가시간 모두 많은 시간 활용 - 학원보다는 스스로 공부 시간 길었음 - 독서, 운동, 수면,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가장 길었음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가장 긍정적	- 무기력집단(35.7%) - 학습시간, 여가시간 모두 적은 시간 활용 - 학업과 여가 모두 가장 적거나 두 번 짤 적은 수준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다소 낮았으나 유취집단보다는 높은 편이었음	- 학업집단(22.7%) - 학원 시간이 특히 길고 여가시간 항목에 가장 적은 시간 사용(독서 제외) - 운동시간이 가장 적고 건강상태도 낮게 평가함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대체로 높았으나 균형집단보다는 낮은 편이었음
	2018 생활시간 유형 결정요인 - 월 소득, 모학력은 낮고, 모취업 비율은 높게 나타남 - 부정적 양육태도는 높고 긍정적 태도는 낮게 나타남 - 자녀의 기대학력과 학교생활/성취도의 만족이 낮음	- 월 소득은 학업집단보다 소폭 낮은 편 - 긍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고, 부정적 양육태도 낮음 - 자녀 기대학력과 학교생활/성취도의 만족이 높음	- 월 소득, 모학력은 낮고, 모취업 비율은 높게 나타남 - 긍정적 양육태도가 유취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 자녀 기대학력과 성취 만족도는 유취집단보다 높음	- 월 소득과 모학력이 높고 모취업 비율은 낮음 - 부정적 양육태도가 균형집단보다 높은 편(특히 강요) - 자녀의 기대학력과 성취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집단 변별 요인으로 배경(월 소득, 모취업, 모학력), 양육특성 및 태도, 기대학력은 집단 변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 - 부모의 심리특성은 집단 간 차이는 있었으나 변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				
2010 · 2018 생활시간 유형 세대변화	- 유취집단 - 학원 시간 증가, 스스로 학습 시간 감소 - 컴퓨터, TV 감소, 친구와 노는 시간 증가	- 균형집단 - 스스로 학습 시간 감소 - 컴퓨터, TV 감소, 친구와 노는 시간 증가	- 학업집단 - 학원 시간, 스스로 학습 시간 유사한 수준 - 컴퓨터, TV소폭 증가, 독서시간 증가	- 전체 2018년 유취집단 소폭 감소/학업집단 증가 - 모든 유형에서 친구와 노는 시간 크게 증가

2. 제언

생활시간 유형별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생활시간 유형의 세대 간 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후속 연구에 대한 다음의 제언을 도출하였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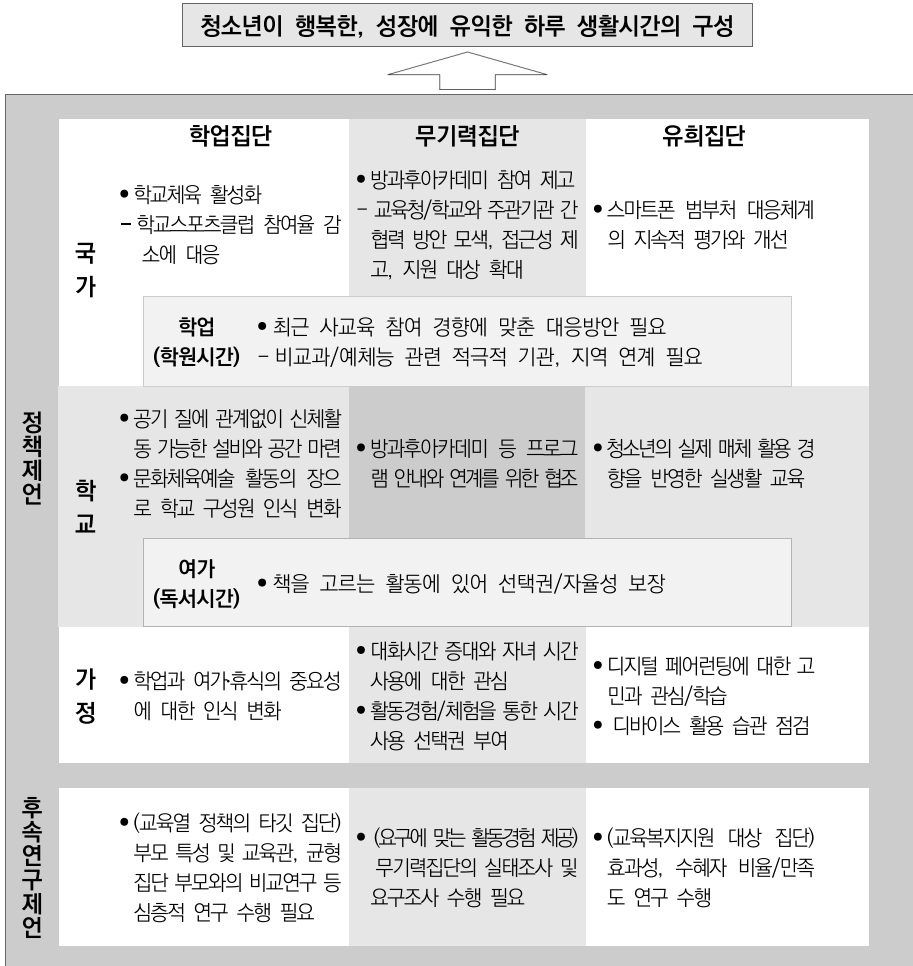


그림 V-1 생활시간 유형 분석에 대한 제언

25) 여가와 학업 시간이 충분하고 신체발달, 심리·사회적 특성, 학교/학업 관련 상황이 가장 양호한 균형집단의 제언은 제외함

1) 생활시간 유형별 제언

생활시간 사용 양상에 따라 분류된 4개의 유형은 각각 균형집단, 학업집단, 무기력집단, 유희집단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균형집단에 비교할 때 운동시간, 여가시간이 부족하거나 심리·정서적인 특성, 휴대전화 의존도 등에서 다소 부정적 결과가 있었던 학업집단, 무기력집단, 유희집단에 대하여 국가의 정책적 차원, 학교 차원, 가정 차원에서의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제언한다.

(1) 학업집단

학업집단은 학업 부분에서는 균형집단에 비하여 학원 시간이 길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적었는데, 학업성취도 수준은 유사하였다.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특징적으로 친구와 노는 시간이 적었고, 운동시간이 적었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심리·정서적으로는 무기력집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학업성취수준이 유사한 균형집단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나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도가 특히 낮았다.

학습시간 증가로 인한 수면, 운동 등 휴식 시간 감소는 청소년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정익중 외, 2019). 이를 고려하여 학업집단의 결과를 보면 긴 사교육 시간으로 인해 여가와 휴식 시간 그리고 신체활동의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와 삶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원보다는 스스로 공부시간이 길고 적절한 여가 및 휴식을 취한 균형집단과 학업성취 수준이 유사한 것을 볼 때, 학업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교육 의존 방식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재고가 필요하다. 즉 학업집단에는 사교육 시간을 줄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가와 휴식,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시행 2017. 10. 19.)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와 제10

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라 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운영과 전담교사 배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서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을 정책 목표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운동하는 모든 학생’은 그동안의 정책 목표였던 1학생 1스포츠 활동의 표현을 재정립한 것으로 즉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2019a)의 중점과제와 세부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V-2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의 과제

4대 중점과제	19개 실행과제
1.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1-1. 체육수업 내실화 및 체육교사 전문성 신장 1-2. 학교체육 역량 강화 연수 1-3. 초·중·고 체육교육 전문 인력 지원 1-4. 초등 수영실기교육 및 생존수영 확대 운영 1-5. 체육 중점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 1-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1-7. 학생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운동하는 모든 학생)	2-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2-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내실화 2-3. 학교(학급) 및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2-4.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2-5.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지원 확대
3.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 성지원	3-1.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3-2.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강화 3-2.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4.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 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	4-1.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4-2. 단위학교 자율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4-3.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4-4. 학교 체육시설 환경 구축

출처: 교육부(2019a).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4대 중점과제 중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모든 학생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제도 마련을 독려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에게 운동기회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관련된 정책성과 확인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 지정 여부와 연간 17시간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을 매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세부 과제 중 리그나 대회의 경우에는 참여 학생이 전체 학생에 일부일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수시 및 상시로 운영되는 교내 스포츠클럽에서의 활동이 청소년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그런데 2015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17시간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비율이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V-3 2013~2018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등록 현황

연도	초	중	고	전체	등록률(%)
2013	2,140,783	773,339	400,698	3,314,820	54.8
2014	2,307,483	964,869	515,049	3,787,401	65.2
2015	2,339,024	984,177	555,737	3,878,938	68.8
2016	2,223,318	938,679	542,790	3,704,787	68.0
2017	-	-	-	3,734,732	65.2
2018	-	-	-	3,205,900	57.4

출처: 교육부(2016) 2016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교육부(2017a) 2017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교육부(2018) 2018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교육부(2019a) 2019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등록한 학생 수와 비율을 보면 2018년에는 201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50%대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년 간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의식 및 수요조사, 클럽 운영에 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클럽활성화 등의 추진 과제는 학교체육법안이 발의되던 2009년 이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과제이다. 정부의 정책과제가 단기간 변화하기 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필요는 반드시 있지만 10년 정도 추진해 온 현 시점에서 변화하는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학교문화, 청소년의 생활패턴과 요구에 맞추어 재정립 되어야 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클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혹은 시설이 확충된 외부기관 연계를 보다 적극 추진할 것인지 또는 바우처 등의 예산 지원으로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인지 등의 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지방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배정 비율도 2018년 4%에서 3%로 축소되어 정책 추진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만족도는 80.8%라는 정책성과를 내었다. 따라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원인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 질 악화로 인한 체육활동 위축에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보건법(시행 2019. 10. 24.)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시행 2019. 7. 2.)에서는 학교장의 공기 질 관리 의무 그리고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2019년 3월과 4월에는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만큼 공기 질이 악화되었다. 학교와 학교장은 이처럼 실외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 강당 등에 공기정화시설을 확충하여 실내 체육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야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공간을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시간을 대부분 학업에 집중하여 보내는 경우 신체활동 및 또래

와 어울리는 활동 시간이 다른 학생에 비해 적을 수 있다. 이는 학교풍토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에서 공기 질에 관계없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이 마련되는 것과 더불어 학교는 학업 외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문화체육예술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교 구성원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신체활동 수준이 증가하고 학업 외에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인식이 공유된다면 학업으로 인해 신체활동, 또래활동 기회 위축 그리고 그로인한 만족도 저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는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학업에만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고 자녀의 생활시간을 이에 집중한다면 자녀는 적절한 휴식과 여가 시간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학교와 생활 전반에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연구 결과에서 확인하였다. 2019 아동행복생활지수에 따르면 보호자는 청소년의 응답 시간보다 대체로 자녀가 더 자고 덜 공부하며 운동이나 휴식 시간도 실제 시간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실제 생활에 대한 객관적 인식 보다는 주 양육자의 가치관이 투영된 판단으로 청소년이 과도하게 학원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학업집단의 주 양육자가 월 소득이 600만원 내외 수준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균형집단(500만원~600만원)과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학업집단의 성취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지 않았던 결과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청소년에게 학업은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지만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은 신체활동, 또래활동 등 다른 생활시간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평가해볼 요소이며, 이는 다시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학업 집단	국가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와 재정립을 위한 체계적 검토 •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감소와 예산 편성 등
	학교	• 공기 질에 관계없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마련 • 학교가 문화체육예술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교 구성원이 인지
	가정	• 학업과 여가·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림 V-2 학업집단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2) 무기력집단

무기력집단은 조사항목 모두에서 대체로 비교적 짧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집단이다. 수면 시간은 가장 길었으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학습관련과 여가 관련에서 가장 적거나 두 번째로 적은 정도의 시간 활용을 보였고, 부모와의 대화시간도 가장 적었다. 행복감, 만족감, 자존감, 학업열의는 평균보다 소폭 낮고 우울과 불안, 학업무기력 수준은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청소년 스스로의 선택이고 시간 사용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되어야한다. 여러 가지 활동 경험을 가져보고 다양한 시간 활용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지한 후에도 전반적으로 시간 사용이 적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루 시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활동들로 채울 것이며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혹은 더 적극적인 수준의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무기력집단은 수면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활동 수준이 낮는데 성장함에 따라 현재의 시간사용 패턴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분야의 활동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시간 사용이 늘어나는 분야는 학업이나 진로에 관한 부분일

수 있고, 의미 있는 사회참여나 또래활동,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탐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기력집단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평균보다 소폭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매체 사용에 시간이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 경험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방과 후 시간을 체험활동, 학습, 상담, 취미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된 서비스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고,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국제교류·참여활동 등도 있다. 이 가운데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활동, 복지, 호보,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전국 280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8a).

표 V-4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구 분	내 용
운영시수	· 기본운영 : 일 4시수, 1주 20시수 이상 · 모집정원의 30% 범위 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 허용 (기관운영시간은 동일, 참여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 주말자기개발활동 :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기준	· 민주시민역량, 진로개발역량,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체험활동을 월 9시간 이상 의무 편성
우선순위 지원 대상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미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복지부, '18.7월)결과 연동 ·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 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 추천서와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증빙서류 구비	· 지원 대상 심의 및 증빙서류 구비 필수(신규 참여자만 해당, 지속 참여자는 요건 변동 시에만 제출)
운영 기관 수	· 280개소
시설 설치요건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내 설치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2019년도에는 효과성과 만족도 연구에서 보완사항으로 지적되어왔던 구비 서류 간소화와 운영 시설 및 대상 청소년 확대(양계민, 2018)를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침을 개편하였다. 지원 대상 심의를 위한 증빙서류는 신규 참여자에게만 반도록 하였고, 운영 시설의 경우 교육(지원청)과 민간운영시설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69% 미만까지 확대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수요조사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과 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참여 청소년의 출결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서 공결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무단결석은 사유를 확인하여 퇴소 처리 및 승인 후 재참여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 무기력집단은 주 양육자가 지난 한 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비율이 아버지는 96.5%로 4개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어머니의 경우도 75.2%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아버지의 근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균형집단으로 98.1%, 어머니는 유희집단으로 79.3%였음). 부모 모두 근로하는 비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방과 후 시간 활용과 관리, 다양한 학습지원과 활동 경험을 가지는데 방과후아카데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도 홍보 등 확장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은 필요하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지역 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역 실무자들과 기관장이 개별적으로 참여 대상 모집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양계민, 2018), 지역 매체나 홍보물을 통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정책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 학령기 청소년 대부분이 모여 있는 학교를 통한 홍보가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며, 방과후아카데미 업무메뉴얼에서도 홍보방법의 한 예로 교육청과 학교와의 협조아래 공문을 통한 홍보를 한 방안으로 들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그러나 이는 개별 기관단위에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이것이 각 급 학교에 전달되어 학생 및 학부모에 전달되려면 우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별 운영 기관의 과업으로 맡기기 보다는 여성가족부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사업 시행 및 주관 기관 단위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도 학교차원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학생과 학부모에 알리고 있는 학교가 있는 만큼 더 많은 학교들에서도 개별 운영기관의 협조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상 청소년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데, 현재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더 많은 청소년이 양질의 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일부 수익자부담을 고려하여 제공 기관을 늘리고, 일반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아카데미 안에서 또래 간 긍정적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학교의 구분을 넘어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이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도 특정한 계층과 입장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두되 구분 없이 다양한 청소년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접근일 수 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지 않은 방과 후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유익한 활동을 찾아 함께 해보거나 제안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기력집단은 4개 집단 가운데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가장 짧았는데, 대화시간을 늘려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대화해볼 것을 제안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성장발달에 필요한 시간이지만 혹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혹은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지만 방법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대화를 통해 찾아보고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기력 집단	국가	• 방과후아카데미 홍보를 위한 교육청/학교와 주관기관 간 협력 방안 모색 • 접근성 제고와 일반학생까지 지원 대상 확대
	학교	• 방과후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협조
	가정	• 대화시간 증대와 자녀 시간 사용에 대한 관심 • 활동 경험/체험을 통한 시간 사용 선택권 부여

그림 V-3 무기력집단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3) 유희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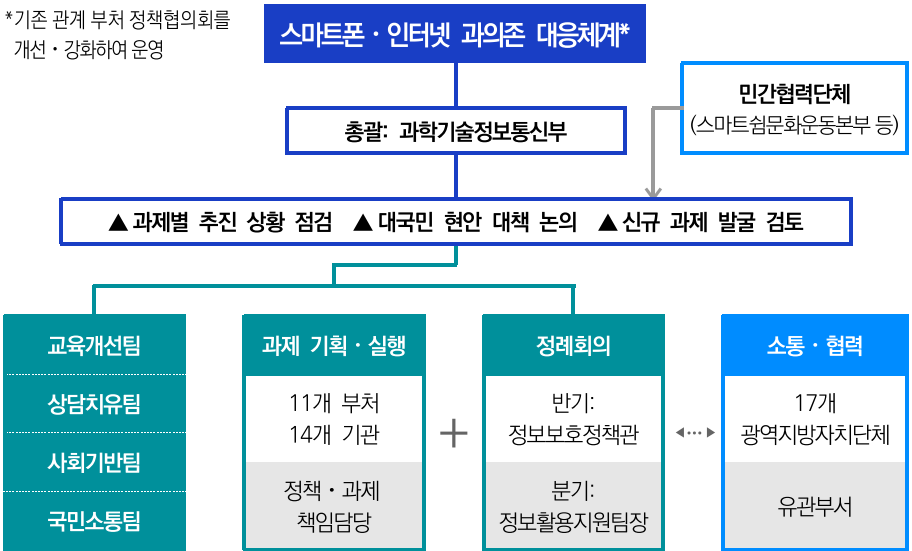
유희집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TV 등 여가 항목 중 매체사용 관련 항목과 친구와 노는 시간이 특징적으로 긴 집단이다. 학원에 있는 시간은 가장 짧았고, 인터넷강의와 방과후학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등은 두 번째로 짧았다. 수면시간은 가장 짧고 아침식사 횟수도 가장 적으며 BMI 지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복감, 만족감, 자존감 등의 심리·정서적 면에서는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우울 및 불안 수준은 가장 높았으며 성취수준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업열의는 가장 낮고 학업무기력 수준은 높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체와 학업 및 심리·정서적 요인 등이 4개의 집단 중 가장 부정적으로 나왔으나 이 결과는 상대 비교에 의한 것이고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BMI도 4개 집단 중 가장 높았으나 정상범위 안에 수치이고, 수면 시간도 7~8시간으로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에 가깝다. 특징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다. 유희집단의 청소년은 하루 3~4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평일 방과 후 시간을 고려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다. 휴대전화 사용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월, 11개 부처와 14개 기관²⁶⁾과 협동하여 2019

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응체계는 교육개선팀, 상담·치유팀, 사회기반팀, 국민소통팀의 4개 전담팀으로 구분되어 있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한다. 교육개선팀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예방교육 운영 체계의 개선과 통합 안내 방안을 마련하고, 상담·치유팀에서는 디지털 역기능 상담·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체계 개선과 통합 안내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기반팀은 학부모 및 보호자, 교원, 전문 인력 등의 교육과 연수 그리고 법제도 운영 및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국민소통팀은 대 국민 홍보와 인식제고, 정책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관계 부처 정책협의회를
개선·강화하여 운영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4. 12). 보도자료.

그림 V-4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

26) 정부부처: 과기정통부(총괄),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민권익위, 방통위, 사감위, 경찰청/ 유관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쉽센터),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의 2019년 추진계획을 보면 과의존 및 과몰입 예방 교육과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정보·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 역량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V-5 청소년 대상 과의존 대응체계 추진계획

연령	목표	추진과제
청소년	세상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디지털 자원 활용	· 스마트폰 과의존·게임 과몰입 예방 강화 * 학령별 기본·심화 예방교육, ICT 진로적성탐색 교육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술조치 * 사이버 안심존 보급(스마트폰 이용 관리 및 지도·상담연계) · 올바른 게임 이용 및 게임리터러시 교육 * 게임물 등급분류 체험, 게임을 통한 코딩 학습·진로 탐색 · 정보·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기획·운영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함양 ·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뮤지컬 공연, 게임형 교구 등 체험·실천형 교육 · 사이버 도박 및 범죄 예방교육 * 도박문제 조기 대응, 위기·비행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4. 12). 보도자료.

법부처 대응체계의 출범은 그간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서 진행해오던 매체 과의존 관련 여러 정책과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높이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 관계 아래 시행·운영 되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를 가진다. 올해 추진계획이 수립된 만큼 그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지만 스마트폰·인터넷 같은 매체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과 현황 파악, 진단, 치유와 상담까지 수요자의 측면에서 이들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제공되는지가 정책성과의 강조점이 될 것이다. 여러 기관과 부처를 직접 찾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서비스들이 즉각 연계되어 제공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의 질은 전체 통합체계 아래서

유기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되는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학교는 바른 매체 사용에 대하여 생각하며 배우고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며, 과의존 또는 사이버폭력 등 매체 사용의 역기능을 예방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매체 사용에 관한 교육은 더 이상 부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문서를 보면 반드시 달성해야할 성취기준으로서 매체 사용에 관한 항목들을 여러 교과에서 찾을 수 있다. <표 V-6>은 중학교의 교과별 교육과정문서에서 발췌한 매체 활용 관련 성취기준이다.

표 V-6 중학교 교육과정의 매체 활용 관련 성취기준

교과	성취기준
실과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사회	[9사(일사)02-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도덕	[9도02-05]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의 도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국어	[9국01-11](읽기)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
	[9국01-12](읽기)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3-08](쓰기)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9국03-10](쓰기)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출처: 교육부(2015a)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2015b)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2015c)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2015d)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에 매체 활용 관련 성취기준이 다양한 교과에 걸쳐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한 매체 활용 능력 함양과 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토대는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취기준이나 교과 내용을 다룰 때에도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체 활용 교육이 보다 효과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유희집단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족 및 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경우보다 영상시청을 하는 청소년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장래희망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상위권에 오르 고, 거대 영상 플랫폼과 SNS서비스 고도화로 온라인 자료의 생산자와 소비자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심의나 등급분류도 할 수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 자료 들에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2018년 인터넷·스마 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에서도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약 13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에는 조사인원의 14.3%, 2018년은 15.2% 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b).

현실적으로 유해한 온라인 자료를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한계가 분명한 방식이다.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오히려 콘텐츠를 제작하며 미디어의 속성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접근도 효과적일 수 있고, 학교 수업에서 여러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며 순기능을 익히게 할 수도 있다. 교사와 함께 인터넷 상의 가짜뉴스를 구분하여 보거나 악의적인 댓글이나 비윤리적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자에 알리거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볼 수 도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매체 활용 경향과 요구를 예민하게 파악하여 교육 내용 속에 이를 반영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주 양육자는 바른 디지털 페어런팅(Digital Parenting)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페어런팅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매체 사용 관련 양육 방식 또는 교육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내외 성공한

IT업계 종사자들이 오히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드론 등 스마트 기기 사용에 시간을 정해두는 등의 사례로부터 널리 알려진 개념이기도 하다. 어떠한 특정 방식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디지털 키즈(Digital Kids)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SNS의 사용법을 부모가 먼저 알고 자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가이드(i.e. 부모를 위한 인스타그램 글로벌 가이드)를 이용하거나 범부처 대응체계에서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제시한 디지털 페어런팅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자녀의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 습관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부모 자신의 디바이스 사용 습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TV, 스마트폰, 게임 모두 부모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이용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하형석, 2019).

유·학 집단	국가	출범 초기인 범부처 대응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서비스 연계/통합 차원의 지속적 평가와 개선
	학교	청소년의 실제 매체 활용 경향과 가까운 학교교육
	가정	- 디지털 페어런팅에 대한 고민과 관심/학습 - 자녀 및 자신의 디바이스 활용 습관 점검

그림 V-5 유·학집단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2) 생활시간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제언

생활시간 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두 집단군, 즉 균형 및 학업집단과 유희 및 무기력집단이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균형집단 및 학업집단이 가정의 경제적 배경, 부모의 행복감이나 자존감 등의 심리적 특성, 바람직한 양육태도,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 등이 유희 및 무기력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유사집단군 내에서 두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균형 vs. 학업중심, 유희 vs. 무기력)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주목해 볼만한 몇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집단과 균형집단의 구분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집단은 학원의존도가 가장 높고 TV나 휴대폰 사용시간, 친구와 만나는 시간 등이 가장 적으며 기대 학력이 가장 높은, 즉, 비교적 부모에 의해 ‘관리되는’ 경향이 높은 집단이다. 학업집단은 균형집단에 비해 소득이 높고 모의 취업률이 낮은 집단으로, 학업을 위주로 생활전반에 집중적 보살핌, 혹은 관리를 받는 경향이 강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 상으로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균형집단과의 단변인 비교에서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등의 순기능적 태도 수준은 더 낮은 반면 강요와 같은 역기능적 양육태도의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강한 목표의식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부모의 이러한 체계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과, 이들이 다양한 학업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다. 이 집단은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부모가 다양한 학업적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의 교육결과 관련된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집단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속한 부모의 특성 및 이들의 교육관, 균형집단 부모와의 비교

연구 등 심층적 연구가 추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관련 정책의 주된 관심의 대상인 유희집단과 무기력집단은 학업 및 균형집단보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유희집단이 아침식사, 부모의 양육태도 및 기대수준 등에서 보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부모의 적극적인 학업적, 생활적 개입이 어렵고 그로 인해 행복도, 삶의 만족감, 자존감 등 심리·사회적 변인과 학교생활 만족도나 또래관계 등 학교관련 심리 특성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희집단이 교육복지 측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유희집단 청소년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지원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내·외에서의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원 정책의 효과성, 수혜 비율 및 만족도 등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종합 및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무기력집단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서 나온 상황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어떠한 사회·심리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체험활동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이들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등의 심층적 조사를 제안한다.

정책연구 제언	학업집단	• 사교육 및 교육열 관련 정책의 타깃 집단으로 인식 필요 - 부모 특성 및 교육관, 균형집단 부모와의 비교연구 등 심층적 연구 수행 필요
	유희집단	• 교육복지지원의 효과성, 수혜자 비율/만족도 평가 필요
	무기력집단	• 다양한 체험활동 경험이 사회·심리적 상황에 맞춰 정교하게 제공되어야 함 - 무기력집단의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수행 필요

그림 V-6 생활시간 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3) 생활시간 유형 변화에 관한 제언

2010년과 2018년의 생활시간 유형과 유형별 시간 활용 변화 비교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학업 관련 항목에서는 학원 시간 증가와 스스로 공부시간 감소, 여가시간에서는 친구와 노는 시간 증가와 학업집단의 독서시간 증가 등이 있었다. 특히, 학원 시간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교육 경감 대책과는 다른 방향의 결과여서 정책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학원 시간

2012년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문제가 되면서 수립된 2012 사교육비 경감대책(교육부, 2012)에 이어 2014년 12월에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었다(교육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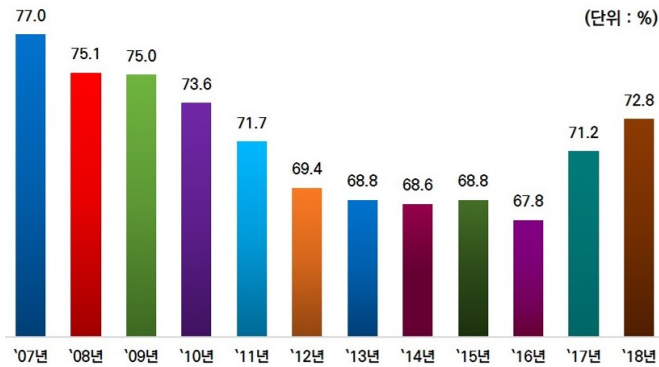
표 V-7 201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4대 핵심전략		9대 중점과제	
1.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1. 영어 : 학교교육의 질 제고	
		2. 수학 : 학습내용 적정화 및 수능 준비 부담 완화	
2.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3. 초등 :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4. 중학 :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 및 고입전형 개선	
		5. 고교 : 대입 부담 완화	
3.	법·제도 인프라 구축	6.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7.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4.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	8.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9. 학부모 교육 등 범사회적 인식 개선	

출처: 교육부(201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표 V-7〉과 같이 기본 방향은 지나치게 학벌 중심적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과 함께 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수요자 맞춤 방과후학교 교육으로 사교육을 경감하고자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돌봄 공백을 매우고 중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기르며, 학원비 안정화하는 것도 중점 과제에 포함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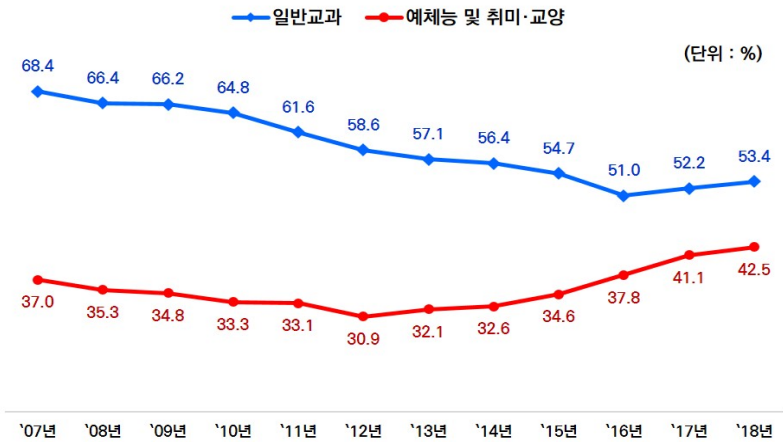
그러나 분석결과를 보면 유희집단과 균형집단의 학원 시간이 증가하였고, 교육부에서 매년 시행중인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사교육비용과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b). [그림 V-7]은 2007년~2018년의 사교육 참여율 변화이다.



출처: 교육부(2019b).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그림 V-7 사교육 참여율 변화

2018년 참여율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감소해오던 사교육 참여율이 최근 증가한데에는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한 가지 원인으로 [그림 V-8]의 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교육부(2019b).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그림 V-8 교과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

[그림 V-8]을 보면 사교육 참여율이 다시 증가세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학원 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본 분석 결과에서도 유희집단의 사교육 이유 중 취미 및 자기개발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최근의 사교육 참여 경향에는 학업성취나 대입을 준비하는 목적 뿐 아니라 예체능, 취미, 자기개발 등도 주요 목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향후 추진 계획은 <표 V-8>과 같다.

표 V-8 2018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1.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 안정적 추진과 대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단순화 지속 추진
2.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기초학력지원, 수요자 맞춤 방과후학교
3. 학원비 안정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초등돌봄교실 지속적 확충
4. 사회구조적 영향 완화 노력-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
5. 사·도교육청과 공동 노력 및 체계적 사교육 점검·조사를 통한 정책 개선 추진

출처: 교육부(2019b).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2018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도 2014년의 내용과 큰 방향에서는 유사하다. 대입부담 완화와 공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원비 안정화와 돌봄 공백 완화, 사회 제도적·인식적 개선 등이 그러하다. 또한 최근 2년 간 사교육 참여율 등이 증가하였더라도 이러한 경감 대책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반 교과 분야의 사교육 참여율이 2007년에 비해 15%p 감소했고, 성취도 향상만을 위해 학원에 가던 분위기도 변화하여 자녀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보내지 않는 부모도 늘었다. 이는 시험 및 평가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주고 진로나 사회 참여 등 여러 청소년 활동을 독려하며, 선행학습방지나 학원 운영 시간의 제한 등 구체적 제재도 함께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사교육의 참여 경향이 달라졌다면 대응 방안도 이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 학원의 목적으로 예체능, 취미 및 자기개발 등이 커지고 있다면 이는 학원이 소득에 따른 교과 교육격차 확대 뿐 아니라, 사회·문화자본의 격차 확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육 외의 교육 내용들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모두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연계를 사교육 경감 대응방안으로 생각해보아야 하고, 학교가 여러 기관과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되는 참여활동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교육의 장이 학교와 학원으로 이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을

대체하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도 학교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사교육 경감 대응 방안에 이를 담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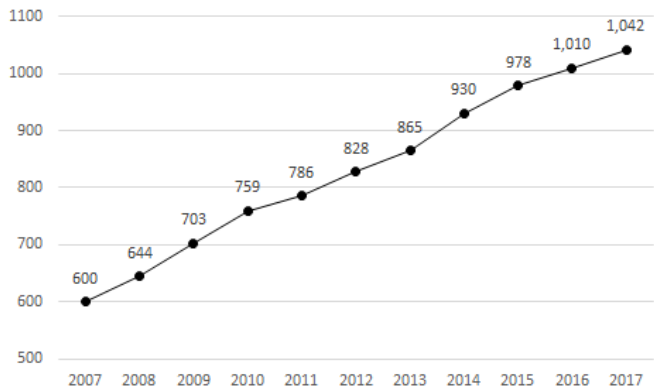
(2) 여가시간

2010년과 2018년 중학교 1학년의 생활시간을 비교할 때, 여가시간 항목에서는 친구와 노는 시간과 학업집단의 독서시간 증가가 특징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친구와 노는 시간이 모든 집단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조사대상이 중학교1학년으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청소년이 많았다는 점을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었고, 희망학교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로도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와 같이 한 학기를 개별 학교에서 선택하여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 동안에는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수업 및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교육부, 2017c).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4개 영역의 자유학기 활동 뿐 아니라, 교과수업도 학생참여 및 활동수업, 토론, 프로젝트 형식으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강의식 보다는 또래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늘고 친구와 놀이시간 또는 놀이시간으로 인식되는 시간도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성장·발달에 대한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놀이수업, 놀이시간 등을 편성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놀이시간 확대나 자유학기제 시행이 친구와 노는 시간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간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향상된 변화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업집단의 독서시간 증가도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독서시간 증가

에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처리 등 다양한 융합적 역량이 강조되고, 논술 등 종합적 사고력 평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는 점을 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주로 ‘온 책 읽기’ 활동으로 시행 중인 국어교과의 ‘한 학기 한 권 읽기’도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더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V-9]는 연도별 공공도서관 수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V-9 연도별 공공도서관 수

공공도서관 수는 2007년부터 꾸준히 늘어서 2017년에는 1,042개로 집계되었다. 독서시간의 증가는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의 변화 그리고 국어과 시간을 통한 책읽기 활동의 전개,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적 인프라 확대로 인한 결과로 추론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업집단의 독서시간은 2010년 ‘30분 미만’에서 2018년 ‘30분 이상~1시간 미만’ 정도로 증가한 데 비하여 다른 집단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독서를 장려하는 정책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학업집단의 경우 독서 장려와 인프라 확충이 여가시간 독서로 이어졌지만 다른 집단에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집단은 학업에 소요하는 시간이 긴 집단으로 텍스트의 읽고 쓰기에 대한 활동이 비교적 많고 친숙한 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은 독서 시간이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스마트폰 소지 비율과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독서 활동의 위축되지 않으려면 독서시간이 증가되지 않거나 감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떠한 책을 장려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책을 읽는 활동 뿐 아니라 책을 고르는 활동의 중요성도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독서는 책을 읽는 활동에 국한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자발적인 독서가 되어 독서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 습관을 유지하려면 책을 고르는 부분부터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왕효성(2014a)에 따르면 청소년 독자들의 책 난이도에 대한 인식은 독서 목적(즐거움, 지식·정보 획득), 독서 상황(자유상황, 학습상황), 독서 유형(문학텍스트, 정보텍스트) 등에 따라 다르게 체감된다. 자유 독서보다는 학습 독서 상황에서 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인식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부여된 과제의 해결을 위한 독서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지영(2019)은 독서가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는 ‘독서 정체’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청소년기 ‘선호하는 장르 및 도서의 발견’, ‘(특정 장르)독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정체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즉, 선호하는 장르나 도서를 몰입하여 읽은 뒤 그러한 장르와 거리가 먼 권장도서를 과업으로 부여받은 경우 혹은 교사로부터 특정 장르 책을 읽은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독서에 흥미를 잃게 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청소년 독자들은 판타지 소설을 읽은 경험이 많음에도(류보라, 2013),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라 스스로 인식하거나 그러한 피드백을 받기도 한다.

학교 과업으로써 개별적인 흥미나 수요에 관계없이 정해진 책을 보고 정해진 분량의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읽은 내용을 잘 숙지하였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독서의 흥미를 반감하는 역효과까지 생길 수 있다.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시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며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67.1권에서 8.3권으로 감소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성인기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려면 과도한 내용이나 장르의 제한은 지양하고, 청소년 시기에 권장할만한 도서 외에도 청소년의 흥미나 관심사에 맞는 책을 폭넓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독서 후 추수활동 역시 책을 읽은 후 느끼는 감상이나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찾아보거나, 독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체 활동 및 게임을 해보는 등 독서가 숙제나 학업의 또 다른 방법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연구 제언	학업 (학원시간) • 최근 사교육 참여 경향에 맞춘 대응방안 필요 - 학원 시간과 취마자기개발을 위한 학원참여 증가함 - 교육의 장을 학교와 학원으로 이분화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 기관/지역 연계 필요
	여가 (독서시간) • 책을 고르는 활동에 있어 선택권/자율성 보장 - 독서 장려 정책의 집단별 차별적 효과가 확인됨 - 과도한 내용이나 장르의 제한은 지양 - 흥미나 관심사에 맞는 책 소개 및 추수활동 필요

그림 V-10 생활시간 유형 변화에 대한 제언 주요 내용

3.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하고 성장발달에 유익한 생활시간 활용을 위하여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018년 현재 청소년의 생활시간 형태를 잠재집단분석으로 유형화하고, 생활시간 배분 유형 간 특성의 차이 및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2010년과 2018년의 생활시간 활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유형비교를 통하여 세대 간 비교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 생활시간을 다룬 연구와 달리 여러 시간 사용 항목들이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고 보고 유사한 패턴을 묶어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여러 시간 사용 항목들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 긴 청소년’이 아닌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 길면서 운동시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적은 유형’과 같이 보다 입체적인 파악이 가능하였다. 유형 구분에 더하여 유형별 신체발달, 심리·정서적 특성, 학업/학교관련 특성 등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고, 유형 구분에 영향을 주는 부모변인 탐색과 2010년과의 세대 간 비교를 통하여 [표 V-9]와 같이 주요 결과에 따른 정책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학업집단에 대해서는 신체활동 증대와 부모 특성에 관한 심층 연구, 무기력 집단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체험기회 확대와 이를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유흥집단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교육복지지원의 점검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국가와 학교, 가정의 차원에서 제안하였으나 지역 수준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보고서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17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지역별 유형의 구성이 매우 달랐는데, 동일 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있기도 했으며 지역 조건과 인프라에 따라 특정 유형이 많아지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또 추후 종단적 유형의 변화 경향과 변화의 원인, 변화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는데 기초연구로써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표 V-9 연구 주요결과와 제언

	주요결과	제언
학업 집단	- 학원 시간이 길고 여가시간 적음(독서 제외) - 운동시간 가장 적고 건강상태 낮게 평가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대체로 높았으나 균형집단보다는 낮은 편 - 부정 양육태도가 균형집단보다 높은 편(강요) - 자녀의 기대학과와 성취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월 소득과 모학력 높고 모취업 비율 낮음	- [국가]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감소에 대응 - [학교] 공기 질에 관계없이 신체활동 가능한 설비와 공간 마련/ 문화체육예술 활동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 변화 유도 - [가정] 여가/휴식의 중요성 인식 - [연구] 교육열 정책의 타깃 집단: 특성 및 교육관, 균형집단 부모와의 비교연구 등
무기력 집단	- 학습시간, 여가시간 모두 적은 시간 활용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다소 낮았으나 유희집단보다는 높은 편 - 월 소득, 모학력 낮고, 모취업 비율 높음 -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가장 적음	- [국가]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제고: 교육청/학교와 협력, 접근성 제고, 대상 확대 -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와 연계를 위한 협조 - [가정] 대화시간 증대 및 자녀 시간 사용에 대한 관심/ 활동경험을 통한 시간 사용 선택권 부여 - [연구] 요구에 맞는 활동경험 제공: 실태 및 요구조사 수행
유희 집단	- 휴대폰, 컴퓨터, TV, 친구와 노는 시간 길 - 휴대전화 의존도 가장 높음 - 아침식사 횟수 가장 적고 BMI 가장 높음 - 심리/정서적 면과 학업/학교적응 면에서 가장 부정적 - 월 소득, 모학력 낮고, 모취업 비율은 높음 - 부정적 양육태도 높고 긍정적 태도 낮음	- [국가] 스마트폰 범부처 대응체계의 지속적 평가와 개선 - [학교] 청소년 실제 매체 활용 실태를 반영한 실생활 교육 - [가정] 디지털 페어링팅에 관심/스스로의 디바이스 사용습관 점검 - [연구] 교육복지지원 대상 집단: 정책 효과성, 수혜비율/만족도 연구 등
생활 시간 변화	- 학원시간은 증가(유희), 스스로 학습시간은 감소(유희, 균형) 경향 - 최근 비교과/예체능 관련 학원 참여 증가 - 모든 유형에서 친구와 노는 시간 증가하였고, 학업집단에서만 독서시간 증가	- [국가] 최근 사교육 참여 경향에 맞춘 대응 방안 필요: 비교과/예체능 관련 적극적 기관, 지역 연계 필요 - [학교] 책을 고르는 활동에 있어 선택권/자율권 보장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 계획 및 예방
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 마련. 보도자료(2019. 4. 12). 세종: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교육부 (2012). 2012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a). 국어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b). 도덕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c). 사회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d).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6). 2016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7a). 2017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7b).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보도자료(2017. 03. 15).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7c).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8). 2018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9a). 2019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9b).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 03.
11). 세종: 교육부.
- 김경식 (2016). 한국 청소년의 체육활동과 스트레스, 친구관계 및 행복. 한국사회

체육학회지, 65, 399-409.

김동하 (2017). 초기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2), 137-157.

김외숙, 박은정 (201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19-132.

김우찬, 이윤석 (2009). 부모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 29-55.

김지윤, 박은혜, 이종은, 강현아 (2018).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우울을 매개로. **학교사회복지**, 41, 127-149.

김혜선, 이복희 (2008). 컴퓨터 사용시간이 고학년 초등학생의 신체 발달, 식생활 습관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41(2), 165-173.

류보라 (2013). 청소년 독자의 독서 경험 특성 연구. **새국어교육**, 94, 109-131.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체부,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7. 02. 05).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박민자, 손문금 (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박은영, 김진옥 (2016). 아동의 컴퓨터·모바일 게임시간과 부모영향요인 연구: 2009년과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1, 77-103.

박정윤, 전유진 (2016). 청소년 자녀의 생활시간 사용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35-47.

박현정, 손윤희, 김전옥 (2017).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과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2), 197-224.

백병부, 황여정 (2011). 일반계 고등학생의 유형별 학습시간 영향요인에 관한

- 종단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2(1), 57-85.
- 보건복지부 (2019).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도자료(2019. 03. 10.). 세종: 보건복지부.
- 상경아, 광영순, 박지현, 박상욱 (2016). TIMSS 2015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 학 성취 특성 (연구자료 ORM 2016-9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경현, 김은경, 조성현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과 행복 감에 대한 체육활동 인터넷 게임중독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9(5), 115-135.
- 서인균, 이연실 (2016).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3), 217-241.
- 성은모, 강경균 (2018). 한국의 아동·청소년 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 **청소년복지연구**, 20(1), 35-65.
- 송유진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5(3), 31-53.
- 심혜선, 전종철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275-300.
- 양계민 (2018).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 (2018a).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b).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결과.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 05. 14). 세종: 여성가족부.
- 오만석 (2010).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4), 299-330.

- 왕효성 (2014a). 청소년 독자들의 텍스트 난이도에 대한 인식 연구. *독서연구*, 32, 63-92.
- 왕효성 (2014b). 청소년 독자들의 독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독자들이 말하는 책 읽기 '좋고 싫음'의 이유를 바탕으로. *독서연구*, 33, 171-198.
- 이정진, 강정희, 이선경, 채규영 (2013). 수면시간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1(3), 100-110.
- 이지영 (2019). 아동·청소년기의 독서 정체 이유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독서 경험 회고담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2, 135-161.
- 이진숙, 김은주 (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 이흥구 (2003). 스포츠사회학 :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5), 147-157.
- 장근영, 김기현 (2009). 한국 청소년의 생활시간 국제비교와 라이프스타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39-155.
- 장상수 (2014). 가족배경과 학습시간, 성적: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한국 청소년연구*, 25(2), 291-318.
- 정은진, 하형석, 고강혁, 정윤미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데이터분석 보고서-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연구보고 17-R16-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익중, 정선영, 이수진, 정수정 (201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생활지수*. 서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정혜지, 주은선 (2017).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교 밖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3(1), 81-116.
- 조성연 (2003). 부모양육방식과 태도 및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 사용시간. *청소년복지연구*, 5(2), 47-59.

- 지현아 (2018). 남자 청소년 쉼터의 경험적 독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독서교육학회지**, 5(1), 69-84.
- 최경일 (2012).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기 보호능력을 매개로. **청소년문화포럼**, 30, 126-166.
- 최인재 (2007).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45-56.
- 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2015. 6. 29). 대전: 통계청.
- 하문선 (2017).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종단적 변화와 가정환경,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25-59.
- 하형석 (2019). KISDI STAT REPORT 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그리고 미디어 이용 제한.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8-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허은정, 이재덕 (2014). 고등학생의 학습유형별 참여 시간이 학업성취도 및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2(4), 121-139.
- 홍인선 (2012).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 문학 독서의 의의. **교양교육연구**, 6(3), 429-462.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Perennial.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Ferrar, K. & Olds, T. & Maher, C. & Maddison, R. (2012). Time use

- clusters of New Zealand adolescents are associated with weight status, diet and ethnicit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37(1), 39-46.
- Hardy, L.L, Dobbins, T.A., Denney-Wilson, E.A., Okely, A.D., & Booth, M.L. (2006). Descriptive epistemology of small screen recreation among Australian adolescents.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42(11).
- Hofferth, S. L. & Sandberg, J. F. (2001).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295-308.
- Larson. R. (2001). How U.S. Childrsn and Adolescents Spend Time: What it Dose(and Doesn't) Tell Us About Their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pp.160-164.
- Muthen, L. K., & Muthen, B. O. (2012). *Mplus user's guide*. Muthen&Muthen.
- Olds, T. & Wake, M. & Patton, G. & Ridley, K. & Waters, E. & Williams, J. & Hesketh, K. (2008). How Do School-Day Activity Patterns Differ with Age and Gender across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4(1), 64-72.
- Piaget, J.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 New York: W.W.Norton & Co.
- Shanahan, M, J. & Flaherty B. P. (2001). Dynamic Patterns of Time Us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pp.358-401.
- Stanovich, K. E. (1986).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 pp.360-407.
- Vandewater E. A., Bickham D. S., Lee J. H. (2006). Time well spent?

Relating television use to children's free-time activities. *Pediatrics*, 117(2), 181-191.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Zick, C. D. (2010). The Shifting Balance of Adolescent Time Use. *Youth & Society*, 41(4), 569-596.

뉴스원 (2019. 04. 15.). "부모와 대화 많이 나눈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한다.". <http://news1.kr/articles/?3597768> (검색일 2019. 05. 17.).

한겨레 (2019. 05. 14). 아이들 '주관적 행복지수' OECD 꼴찌 수준...언제쯤 오를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814.html#csi_dx4af91c6877716b8a891020a729c424e (검색일 2019. 05. 17.).

○ — 부 록

부 록

부록표-1 2018년 5개5 유형

구분		1집단 N (%)	2집단 N (%)	3집단 N (%)	4집단 N (%)	5집단 N (%)
평일 수면시간	5시간 이하	7 (3.5)	0 (0.0)	0 (0.0)	12 (2.7)	4 (0.8)
	6시간 이하	26 (13.0)	11 (1.7)	5 (0.6)	7 (1.6)	30 (6.0)
	7시간 이하	27 (13.5)	67 (10.3)	62 (7.8)	79 (17.8)	110 (21.8)
	8시간 이하	66 (33.0)	251 (38.7)	321 (40.5)	176 (39.6)	217 (43.1)
	9시간 이하	63 (31.5)	257 (39.6)	327 (41.3)	135 (30.4)	129 (25.6)
	10시간 이하	11 (5.5)	50 (7.7)	72 (9.1)	32 (7.2)	14 (2.8)
	10시간 초과	0 (0.0)	13 (2.0)	5 (0.6)	3 (0.7)	0 (0.0)
평일 부모님 대화시간	전혀 안함	0 (0.0)	1 (0.2)	1 (0.1)	6 (1.4)	9 (1.8)
	30분 미만	31 (15.5)	19 (2.9)	168 (21.2)	139 (31.3)	69 (13.7)
	30분~1시간 미만	26 (13.0)	138 (21.3)	272 (34.3)	143 (32.2)	145 (28.8)
	1시간~2시간 미만	42 (21.0)	199 (30.7)	238 (30.1)	81 (18.2)	119 (23.6)
	2시간~3시간 미만	16 (8.0)	155 (23.9)	91 (11.5)	46 (10.4)	80 (15.9)
	3시간~4시간 미만	22 (11.0)	66 (10.2)	18 (2.3)	29 (6.5)	41 (8.1)
	4시간 이상~	63 (31.5)	71 (10.9)	4 (0.5)	0 (0.0)	41 (8.1)
평일 학원 및 과외 시간	전혀 안함	32 (16.0)	117 (18.0)	64 (8.1)	213 (48.0)	19 (3.8)
	30분 미만	7 (3.5)	5 (0.8)	20 (2.5)	7 (1.6)	2 (0.4)
	30분~1시간 미만	6 (3.0)	36 (5.5)	37 (4.7)	26 (5.9)	5 (1.0)
	1시간~2시간 미만	38 (19.0)	109 (16.8)	287 (36.2)	81 (18.2)	35 (6.9)
	2시간~3시간 미만	31 (15.5)	201 (31.0)	294 (37.1)	95 (21.4)	173 (34.3)
	3시간~4시간 미만	22 (11.0)	117 (18.0)	76 (9.6)	22 (5.0)	152 (30.2)
	4시간 이상~	64 (32.0)	64 (9.9)	14 (1.8)	0 (0.0)	118 (23.4)
평일 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전혀 안함	106 (53.0)	213 (32.8)	502 (63.4)	331 (74.5)	283 (56.2)
	30분 미만	16 (8.0)	69 (10.6)	82 (10.4)	23 (5.2)	61 (12.1)
	30분~1시간 미만	8 (4.0)	104 (16.0)	122 (15.4)	17 (3.8)	63 (12.5)
	1시간~2시간 미만	15 (7.5)	171 (26.3)	69 (8.7)	22 (5.0)	59 (11.7)
	2시간~3시간 미만	15 (7.5)	80 (12.3)	17 (2.1)	25 (5.6)	28 (5.6)
	3시간~4시간 미만	8 (4.0)	11 (1.7)	0 (0.0)	11 (2.5)	8 (1.6)
	4시간 이상~	32 (16.0)	1 (0.2)	0 (0.0)	15 (3.4)	2 (0.4)

구분		1집단 N (%)	2집단 N (%)	3집단 N (%)	4집단 N (%)	5집단 N (%)
평일 방과 후 학교	전혀 안함	129 (64.5)	390 (60.1)	630 (79.5)	318 (71.6)	436 (86.5)
	30분 미만	8 (4.0)	15 (2.3)	26 (3.3)	9 (2.0)	2 (0.4)
	30분~1시간 미만	18 (9.0)	50 (7.7)	59 (7.4)	26 (5.9)	20 (4.0)
	1시간~2시간 미만	12 (6.0)	134 (20.6)	73 (9.2)	64 (14.4)	20 (4.0)
	2시간~3시간 미만	13 (6.5)	43 (6.6)	0 (0.0)	24 (5.4)	14 (2.8)
	3시간~4시간 미만	8 (4.0)	4 (0.6)	4 (0.5)	0 (0.0)	7 (1.4)
	4시간 이상~	12 (6.0)	13 (2.0)	0 (0.0)	3 (0.7)	5 (1.0)
평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전혀 안함	8 (4.0)	5 (0.8)	8 (1.0)	163 (36.7)	12 (2.4)
	30분 미만	37 (18.5)	7 (1.1)	166 (21.0)	184 (41.4)	20 (4.0)
	30분~1시간 미만	36 (18.0)	128 (19.7)	408 (51.5)	76 (17.1)	55 (10.9)
	1시간~2시간 미만	29 (14.5)	265 (40.8)	210 (26.5)	20 (4.5)	155 (30.8)
	2시간~3시간 미만	33 (16.5)	167 (25.7)	0 (0.0)	1 (0.2)	157 (31.2)
	3시간~4시간 미만	8 (4.0)	37 (5.7)	0 (0.0)	0 (0.0)	59 (11.7)
	4시간 이상~	49 (24.5)	40 (6.2)	0 (0.0)	0 (0.0)	46 (9.1)
평일 독서 시간	전혀 안함	52 (26.0)	36 (5.5)	226 (28.5)	243 (54.7)	120 (23.8)
	30분 미만	53 (26.5)	115 (17.7)	398 (50.3)	136 (30.6)	128 (25.4)
	30분~1시간 미만	8 (4.0)	246 (37.9)	145 (18.3)	50 (11.3)	162 (32.1)
	1시간~2시간 미만	30 (15.0)	188 (29.0)	23 (2.9)	15 (3.4)	58 (11.5)
	2시간~3시간 미만	14 (7.0)	45 (6.9)	0 (0.0)	0 (0.0)	27 (5.4)
	3시간~4시간 미만	17 (8.5)	10 (1.5)	0 (0.0)	0 (0.0)	9 (1.8)
	4시간 이상~	26 (13.0)	9 (1.4)	0 (0.0)	0 (0.0)	0 (0.0)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전혀 안함	40 (20.0)	17 (2.6)	170 (21.5)	102 (23.0)	181 (35.9)
	30분 미만	21 (10.5)	73 (11.2)	237 (29.9)	121 (27.3)	148 (29.4)
	30분~1시간 미만	23 (11.5)	155 (23.9)	201 (25.4)	70 (15.8)	97 (19.2)
	1시간~2시간 미만	34 (17.0)	216 (33.3)	158 (19.9)	72 (16.2)	57 (11.3)
	2시간~3시간 미만	29 (14.5)	126 (19.4)	26 (3.3)	37 (8.3)	15 (3.0)
	3시간~4시간 미만	14 (7.0)	27 (4.2)	0 (0.0)	20 (4.5)	4 (0.8)
	4시간 이상~	39 (19.5)	35 (5.4)	0 (0.0)	22 (5.0)	2 (0.4)
평일 스마트폰 을 가지고 노는 시간	전혀 안함	3 (1.5)	21 (3.2)	5 (0.6)	11 (2.5)	44 (8.7)
	30분 미만	11 (5.5)	23 (3.5)	58 (7.3)	2 (0.5)	65 (12.9)
	30분~1시간 미만	4 (2.0)	99 (15.3)	160 (20.2)	15 (3.4)	121 (24.0)
	1시간~2시간 미만	33 (16.5)	213 (32.8)	321 (40.5)	68 (15.3)	154 (30.6)
	2시간~3시간 미만	18 (9.0)	227 (35.0)	183 (23.1)	126 (28.4)	66 (13.1)
	3시간~4시간 미만	19 (9.5)	66 (10.2)	45 (5.7)	85 (19.1)	45 (8.9)
	4시간 이상~	112 (56.0)	0 (0.0)	20 (2.5)	137 (30.9)	9 (1.8)
평일 컴퓨터를 가지고 노 는 시간	전혀 안함	105 (52.5)	215 (33.1)	387 (48.9)	188 (42.3)	379 (75.2)
	30분 미만	24 (12.0)	129 (19.9)	120 (15.2)	38 (8.6)	57 (11.3)
	30분~1시간 미만	14 (7.0)	79 (12.2)	121 (15.3)	32 (7.2)	47 (9.3)
	1시간~2시간 미만	20 (10.0)	136 (21.0)	144 (18.2)	54 (12.2)	10 (2.0)
	2시간~3시간 미만	8 (4.0)	75 (11.6)	20 (2.5)	67 (15.1)	4 (0.8)
	3시간~4시간 미만	6 (3.0)	8 (1.2)	0 (0.0)	39 (8.8)	6 (1.2)
	4시간 이상~	23 (11.5)	7 (1.1)	0 (0.0)	26 (5.9)	1 (0.2)

구분		1집단 N (%)	2집단 N (%)	3집단 N (%)	4집단 N (%)	5집단 N (%)
평일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전혀 안함	56 (28.0)	103 (15.9)	144 (18.2)	114 (25.7)	260 (51.6)
	30분 미만	31 (15.5)	134 (20.6)	225 (28.4)	119 (26.8)	113 (22.4)
	30분~1시간 미만	19 (9.5)	141 (21.7)	230 (29.0)	74 (16.7)	80 (15.9)
	1시간~2시간 미만	27 (13.5)	183 (28.2)	176 (22.2)	66 (14.9)	34 (6.7)
	2시간~3시간 미만	33 (16.5)	64 (9.9)	17 (2.1)	35 (7.9)	12 (2.4)
	3시간~4시간 미만	7 (3.5)	22 (3.4)	0 (0.0)	23 (5.2)	5 (1.0)
	4시간 이상~	27 (13.5)	2 (0.3)	0 (0.0)	13 (2.9)	0 (0.0)
평일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전혀 안함	15 (7.5)	30 (4.6)	127 (16.0)	62 (14.0)	229 (45.4)
	30분 미만	17 (8.5)	71 (10.9)	178 (22.5)	49 (11.0)	132 (26.2)
	30분~1시간 미만	12 (6.0)	139 (21.4)	197 (24.9)	54 (12.2)	83 (16.5)
	1시간~2시간 미만	29 (14.5)	183 (28.2)	203 (25.6)	87 (19.6)	51 (10.1)
	2시간~3시간 미만	33 (16.5)	105 (16.2)	68 (8.6)	76 (17.1)	8 (1.6)
	3시간~4시간 미만	17 (8.5)	77 (11.9)	3 (0.4)	35 (7.9)	0 (0.0)
	4시간 이상~	77 (38.5)	44 (6.8)	16 (2.0)	81 (18.2)	1 (0.2)

부록표-2 2018년 3개 유형

구분		1집단 N (%)	2집단 N (%)	3집단 N (%)
평일 수면시간	5시간 이하	13 (2.7%)	1 (0.1%)	9 (1.3%)
	6시간 이하	20 (4.2%)	11 (0.8%)	48 (6.8%)
	7시간 이하	81 (16.9%)	119 (8.5%)	145 (20.5%)
	8시간 이하	170 (35.6%)	584 (41.6%)	277 (39.2%)
	9시간 이하	146 (30.5%)	562 (40.0%)	203 (28.8%)
	10시간 이하	44 (9.2%)	117 (8.3%)	18 (2.5%)
	10시간 초과	4 (0.8%)	11 (0.8%)	6 (0.8%)
평일 부모님 대화시간	전혀 안함	6 (1.3%)	6 (0.4%)	5 (0.7%)
	30분 미만	111 (23.2%)	244 (17.4%)	71 (10.1%)
	30분~1시간 미만	134 (28.0%)	423 (30.1%)	167 (23.7%)
	1시간~2시간 미만	102 (21.3%)	396 (28.2%)	181 (25.6%)
	2시간~3시간 미만	58 (12.1%)	195 (13.9%)	135 (19.1%)
	3시간~4시간 미만	31 (6.5%)	82 (5.8%)	63 (8.9%)
평일 학원 및 과외 시간	4시간 이상~	36 (7.5%)	59 (4.2%)	84 (11.9%)
	전혀 안함	232 (48.5%)	147 (10.5%)	66 (9.3%)
	30분 미만	9 (1.9%)	28 (2.0%)	4 (0.6%)
	30분~1시간 미만	28 (5.9%)	68 (4.8%)	14 (2.0%)
	1시간~2시간 미만	82 (17.2%)	388 (27.6%)	80 (11.3%)
	2시간~3시간 미만	71 (14.9%)	538 (38.3%)	185 (26.2%)
	3시간~4시간 미만	23 (4.8%)	196 (14.0%)	170 (24.1%)
	4시간 이상~	33 (6.9%)	40 (2.8%)	187 (26.5%)

구분		1집단	2집단	3집단
		N (%)	N (%)	N (%)
평일 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전혀 안함	323 (67.6%)	784 (55.8%)	328 (46.5%)
	30분 미만	27 (5.6%)	154 (11.0%)	70 (9.9%)
	30분~1시간 미만	35 (7.3%)	190 (13.5%)	89 (12.6%)
	1시간~2시간 미만	34 (7.1%)	185 (13.2%)	117 (16.6%)
	2시간~3시간 미만	25 (5.2%)	76 (5.4%)	64 (9.1%)
	3시간~4시간 미만	11 (2.3%)	5 (0.4%)	22 (3.1%)
	4시간 이상~	23 (4.8%)	11 (0.8%)	16 (2.3%)
평일 방과 후 학교	전혀 안함	342 (71.5%)	1054 (75.0%)	507 (71.8%)
	30분 미만	13 (2.7%)	38 (2.7%)	9 (1.3%)
	30분~1시간 미만	34 (7.1%)	88 (6.3%)	51 (7.2%)
	1시간~2시간 미만	66 (13.8%)	160 (11.4%)	77 (10.9%)
	2시간~3시간 미만	16 (3.3%)	41 (2.9%)	37 (5.2%)
	3시간~4시간 미만	1 (0.2%)	11 (0.8%)	11 (1.6%)
	4시간 이상~	6 (1.3%)	13 (0.9%)	14 (2.0%)
평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전혀 안함	186 (38.9%)	10 (0.7%)	0 (0.0%)
	30분 미만	188 (39.3%)	226 (16.1%)	0 (0.0%)
	30분~1시간 미만	82 (17.2%)	621 (44.2%)	0 (0.0%)
	1시간~2시간 미만	13 (2.7%)	524 (37.3%)	142 (20.1%)
	2시간~3시간 미만	1 (0.2%)	24 (1.7%)	333 (47.2%)
	3시간~4시간 미만	0 (0.0%)	0 (0.0%)	104 (14.7%)
	4시간 이상~	8 (1.7%)	0 (0.0%)	127 (18.0%)
평일 독서 시간	전혀 안함	271 (56.7%)	328 (23.3%)	78 (11.0%)
	30분 미만	116 (24.3%)	560 (39.9%)	154 (21.8%)
	30분~1시간 미만	45 (9.4%)	356 (25.3%)	210 (29.7%)
	1시간~2시간 미만	24 (5.0%)	136 (9.7%)	154 (21.8%)
	2시간~3시간 미만	8 (1.7%)	24 (1.7%)	54 (7.6%)
	3시간~4시간 미만	6 (1.3%)	1 (0.1%)	29 (4.1%)
	4시간 이상~	8 (1.7%)	0 (0.0%)	27 (3.8%)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전혀 안함	111 (23.2%)	270 (19.2%)	129 (18.3%)
	30분 미만	106 (22.2%)	341 (24.3%)	153 (21.7%)
	30분~1시간 미만	81 (16.9%)	326 (23.2%)	139 (19.7%)
	1시간~2시간 미만	85 (17.8%)	304 (21.6%)	148 (21.0%)
	2시간~3시간 미만	43 (9.0%)	108 (7.7%)	82 (11.6%)
	3시간~4시간 미만	14 (2.9%)	30 (2.1%)	21 (3.0%)
	4시간 이상~	38 (7.9%)	26 (1.9%)	34 (4.8%)
평일 스마트폰 을 가지고 노는 시간	전혀 안함	11 (2.3%)	36 (2.6%)	37 (5.2%)
	30분 미만	9 (1.9%)	93 (6.6%)	57 (8.1%)
	30분~1시간 미만	39 (8.2%)	242 (17.2%)	118 (16.7%)
	1시간~2시간 미만	103 (21.5%)	478 (34.0%)	208 (29.5%)
	2시간~3시간 미만	113 (23.6%)	356 (25.3%)	151 (21.4%)
	3시간~4시간 미만	69 (14.4%)	112 (8.0%)	79 (11.2%)
	4시간 이상~	134 (28.0%)	88 (6.3%)	56 (7.9%)

구분		1집단	2집단	3집단
		N (%)	N (%)	N (%)
평일 컴퓨터를 가지고 노 는 시간	전혀 안함	197 (41.2%)	673 (47.9%)	404 (57.2%)
	30분 미만	41 (8.6%)	222 (15.8%)	105 (14.9%)
	30분~1시간 미만	31 (6.5%)	195 (13.9%)	67 (9.5%)
	1시간~2시간 미만	58 (12.1%)	231 (16.4%)	75 (10.6%)
	2시간~3시간 미만	68 (14.2%)	72 (5.1%)	34 (4.8%)
	3시간~4시간 미만	43 (9.0%)	3 (0.2%)	13 (1.8%)
	4시간 이상~	40 (8.4%)	9 (0.6%)	8 (1.1%)
평일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전혀 안함	124 (25.9%)	308 (21.9%)	245 (34.7%)
	30분 미만	108 (22.6%)	361 (25.7%)	153 (21.7%)
	30분~1시간 미만	61 (12.8%)	369 (26.3%)	114 (16.1%)
	1시간~2시간 미만	68 (14.2%)	309 (22.0%)	109 (15.4%)
	2시간~3시간 미만	56 (11.7%)	44 (3.1%)	61 (8.6%)
	3시간~4시간 미만	28 (5.9%)	14 (1.0%)	15 (2.1%)
	4시간 이상~	33 (6.9%)	0 (0.0%)	9 (1.3%)
평일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전혀 안함	70 (14.6%)	231 (16.4%)	162 (22.9%)
	30분 미만	45 (9.4%)	270 (19.2%)	132 (18.7%)
	30분~1시간 미만	42 (8.8%)	322 (22.9%)	121 (17.1%)
	1시간~2시간 미만	91 (19.0%)	340 (24.2%)	122 (17.3%)
	2시간~3시간 미만	89 (18.6%)	130 (9.3%)	71 (10.1%)
	3시간~4시간 미만	30 (6.3%)	60 (4.3%)	42 (5.9%)
	4시간 이상~	111 (23.2%)	52 (3.7%)	56 (7.9%)

부록표-3 2010년 3개 유형

구분		1집단	2집단	3집단
		N (%)	N (%)	N (%)
평일 수면시간	5시간 이하	6 (1.1%)	8 (0.7%)	1 (0.2%)
	6시간 이하	19 (3.6%)	20 (1.7%)	39 (7.2%)
	7시간 이하	69 (13.1%)	186 (15.6%)	163 (30.3%)
	8시간 이하	206 (39.2%)	551 (46.1%)	181 (33.6%)
	9시간 이하	158 (30.1%)	375 (31.4%)	111 (20.6%)
	10시간 이하	44 (8.4%)	54 (4.5%)	34 (6.3%)
	10시간 초과	23 (4.4%)	0 (0.0%)	9 (1.7%)
평일 학원 및 과외 시간	전혀 안함	406 (74.0%)	178 (14.4%)	52 (9.4%)
	30분 미만	4 (0.7%)	10 (0.8%)	6 (1.1%)
	30분~1시간 미만	4 (0.7%)	74 (6.0%)	15 (2.7%)
	1시간~2시간 미만	55 (10.0%)	327 (26.5%)	82 (14.9%)
	2시간~3시간 미만	33 (6.0%)	364 (29.5%)	161 (29.2%)
	3시간~4시간 미만	41 (7.5%)	187 (15.2%)	125 (22.6%)
	4시간 이상~	6 (1.1%)	93 (7.5%)	111 (20.1%)

구분		1집단	2집단	3집단
		N (%)	N (%)	N (%)
평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전혀 안함	105 (19.2%)	0 (0.0%)	3 (0.6%)
	30분 미만	132 (24.1%)	32 (2.6%)	12 (2.2%)
	30분~1시간 미만	96 (17.6%)	155 (12.7%)	26 (4.8%)
	1시간~2시간 미만	169 (30.9%)	336 (27.6%)	111 (20.5%)
	2시간~3시간 미만	36 (6.6%)	378 (31.1%)	122 (22.5%)
	3시간~4시간 미만	5 (0.9%)	214 (17.6%)	110 (20.3%)
	4시간 이상~	4 (0.7%)	102 (8.4%)	158 (29.2%)
평일 독서 시간	전혀 안함	244 (44.4%)	271 (21.9%)	120 (21.9%)
	30분 미만	155 (28.2%)	494 (39.8%)	197 (35.9%)
	30분~1시간 미만	95 (17.3%)	340 (27.4%)	149 (27.1%)
	1시간~2시간 미만	26 (4.7%)	111 (9.0%)	68 (12.4%)
	2시간~3시간 미만	23 (4.2%)	19 (1.5%)	12 (2.2%)
	3시간~4시간 미만	2 (0.4%)	4 (0.3%)	2 (0.4%)
	4시간 이상~	4 (0.7%)	1 (0.1%)	1 (0.2%)
평일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전혀 안함	67 (12.2%)	108 (8.7%)	299 (54.0%)
	30분 미만	23 (4.2%)	214 (17.3%)	175 (31.6%)
	30분~1시간 미만	95 (17.3%)	478 (38.6%)	62 (11.2%)
	1시간~2시간 미만	187 (34.1%)	380 (30.7%)	7 (1.3%)
	2시간~3시간 미만	117 (21.3%)	53 (4.3%)	7 (1.3%)
	3시간~4시간 미만	36 (6.6%)	6 (0.5%)	4 (0.7%)
	4시간 이상~	24 (4.4%)	0 (0.0%)	0 (0.0%)
평일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전혀 안함	34 (6.2%)	36 (2.9%)	186 (33.6%)
	30분 미만	32 (5.8%)	136 (11.0%)	111 (20.0%)
	30분~1시간 미만	81 (14.8%)	393 (31.8%)	185 (33.4%)
	1시간~2시간 미만	158 (28.8%)	489 (39.6%)	57 (10.3%)
	2시간~3시간 미만	138 (25.1%)	125 (10.1%)	13 (2.3%)
	3시간~4시간 미만	43 (7.8%)	52 (4.2%)	2 (0.4%)
	4시간 이상~	63 (11.5%)	5 (0.4%)	0 (0.0%)
평일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전혀 안함	178 (32.5%)	380 (30.9%)	435 (78.7%)
	30분 미만	46 (8.4%)	304 (24.7%)	72 (13.0%)
	30분~1시간 미만	136 (24.8%)	343 (27.9%)	39 (7.1%)
	1시간~2시간 미만	104 (19.0%)	175 (14.2%)	6 (1.1%)
	2시간~3시간 미만	34 (6.2%)	28 (2.3%)	0 (0.0%)
	3시간~4시간 미만	37 (6.8%)	1 (0.1%)	0 (0.0%)
	4시간 이상~	13 (2.4%)	0 (0.0%)	1 (0.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implications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researching adolescents' happiness and use of time for activities that are beneficial for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adolescents are spending their time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ifferent activities in which they are engaged. Moreover, we tried to examine adolescents' use of time as closely as possible. To this end, we decided that their use of time constitutes a pattern, and thus grouped similar patterns into types, since the use of representative values will disregard the subgroups that exist within the entire group of adolescents. This mean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or groups' use of time might not be observable.

For the research method, we used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grouped adolescents based on their use of time in 2018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groups and the determinants that differentiate each group. The variables that were introduce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groups include physical developmen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levels, academic/school activities, and family backgrou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trend of adolescents' use of time from 2010 to 2018, as well as

changes over time, we grouped adolescents from each year depending on their use of time and compared how these groups used their time. For data analysis, we used one-way ANOVA, post-hoc analysis using contrast coefficien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four groups among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the entertainment group, balanced group, lethargic group, and academic group. The entertainment group (16.5%) spent more of their time using electronic devices or hanging out with friends and less on school work. This group showed the highest dependence on mobile phones, and thei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levels and academic/school-related characteristics were rather negative. Their parents showed highly negative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and low positive attitudes and earned relatively low monthly income. The balanced group (25.0%) showed a balanced use of time between school work and free time, both of which they spent long amounts of time on, and had sufficient time for sleep and conversation with their parents. This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physical developmen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levels, and academic/school-related characteristics. The lethargic group (35.7%) tended to spend short amounts of time on both school work and leisure. Most comparative characteristics were lower and more negative compared to the balanced and academic groups but higher and more positive compared to the entertainment group. This group spent the shortest time conversing with their parents. Lastly, the academic group (22.7%) spent a long time at cram schools. This

group also had the least amount of free time, with the exception of the free time they spent reading. Among the four groups, this group had the least amount of time for exercise, while their parents had the highest expectations for their levels of education and achievement, as well as the highest monthly income and mother's education. In comparison with the adolescents of 2010, there were a few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group, but the general trends were: increased time spent in cram schools, decreased time spent studying alone, and increased time hanging out with friends, as well as increased reading time for the academic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for vitalizing gym classes in schools, increasing student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activities, evaluating inter-governmental measures for addressing students' use of smart phones, and reviewing and changing the ways in which the issue of private education is addressed, in addition to issues that should be dealt with within families, such as parents' interest in their children's use of time, changing perception of school work and leisure time, and digital parenting.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ainted a comprehensive and vivid picture of adolescents' daily use of time by patterning and can be used as a source of basic data for future studies, such as ones that approach the issue from a regional level or study the changes in adolescents' use of time.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 · 최정원 · 강정한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 · 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 · 성윤숙 · 김승보 · 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 · 황세영 · 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 · 변금선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 · 이경상 · 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 · 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 · 서정아 · 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 · 좌동훈 · 남화성 · 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 · 문호영 · 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준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 · 이윤주 · 송민경 · 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시과제

- 19-R53 이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자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L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 · 정소연 · 김혁 · 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 · 김균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 · 장근영 · 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 · 장근영 · 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 · 문수정 · 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 · 임희진 · 하형석 · 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류정희 · 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 · 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 · 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 · 김기현 · 하형석 · 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 · 김성은 · 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 · 박지영 · 이지혜 · 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 · 하태욱 · 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 (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13~14)
-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11.7)
-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 (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 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 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X: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생활시간 유형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 (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45-2 94330

979-11-5654-243-8 (세트)



연구보고 19-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54-245-2 94330
ISBN 979-11-5654-243-8 (세트)